第281回國會 南北關係發展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2月20日(金)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현안보고
 - 가. 통일부 소관
 - 나. 국방부 소관
 - 다. 외교통상부 소관
- 2. 남북간 긴장상태 해소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審査된案件

1. 현안보고 가. 통일부 소관 나. 국방부 소관 다. 외교통상부 소관

(10시12분 개의)

○委員長 李龍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 차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 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국회사무처 전보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위원회 활동을 보좌할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호 전문위원입니다.

김경신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회의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제2차 특별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남북 당국 자 간 대화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 인 노력이 안 보였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 다. 그리고 북측은 지난 1월 17일에 남북 전면대

결태세 진입을 선언한 데 이어 1월 30일에는 정 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 항들에 대한 무효화와 서해북방한계선 조항을 폐 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남북관계 경색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해북방한계선 해 역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미사일 발사 가능성 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 니다. 이런 남북관계 악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 리에게도 경제적 리스크 증대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는 물론 북핵문제와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 제 해결 등에 있어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 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 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화 해협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제시됨으로써 이 자리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 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장관 님들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점들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성실히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현안보고

- 가. 통일부 소관
- 나. 국방부 소관
- 다. 외교통상부 소관

(10시15분)

○委員長 李龍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서 정부 측에서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께서 한미 외교장관회담 참석 관 계로 권종락 제1차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 과 간사위원들께 양해를 요청하여서 양해를 해 드렸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상희 국방부장관께서는 사전에 약속된 미 태평양사령관 면담관계로 11시까지만 회의에 참석하시고 이후에는 장수만 차관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위원들 간에 양해를 해 드렸고 혹 오후에 일정이 빨리 끝나시면 좀 나와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남북관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계속해서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나 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3개 부처 장관들에게 일 괄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인택 통일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송민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그러세요.

송민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송민순 위원 지금 국방부장관님께서 면담일정때문에 오전에 자리를 먼저 일찍 뜨신다고 그러셨는데 장수만 차관께서 지금 남북관계특위에서 갖고 있는 관심사항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지금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미 태평양사령관과의 이 사항이 오래 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 실은 제가 11시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전 반부에 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원래는 처음부터 차관이 참석하려고 하였는데 제가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차관이 그동안 연구 를 많이 했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러시면 그 일정이 언제 되시는 지 모르겠는데요.

국방부장관님께 드릴 질문은 좀 모아 두었다가 그 일정을 마치고 오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서로 토론이 되지 않는 회의를 할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 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는 제가, 또 이 사항 에 관하여 어제, 그저께는 한나라당 또 민주당 여기에 북한 군사동향에 관하여 보고를 드렸고 또 오늘 오후에 선진당하고 보고계획이 잡혀 있 어서 그 시간을 제가 잘 보고 계속이 되면, 그쪽 시간하고 조정이 되면 추가로 참가하도록 하겠습 니다.

○委員長 李龍三 오후에 선진당 보고하시는 게 몇 시라고 그러셨죠?

○국방부장관 이상희 15시 30분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15시 30분이요, 그러면 2시에 저희가 오후 회의를 개의한다고 보고 선진당이 당사가 여기 여의도에 있죠? 그러면 가시는 시간 한 15분 잡고…… 한 시간 정도면 나오실 수 있으려나요? 아니면 얼른 가서 가 보시고…… 그땐 좀 늦을 것 같지요? 어떤가요?

○송민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마 국방부장관께서 "이미국회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라는 이런 상황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선이 남북관계특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지요. 그러면 출석을 한 국무위원께서 여기에서 이미 다 설명한 것을 계속 이렇게 하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이 위원회를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위원회를 이왕 하실 거면, 안 하시면 몰라도 이 토론 하실 거면 좀더 분명한 답변을 할 위치에 있는 분을 모시고 여기 국회에서 우리 가 토론을 해야지 안 그러면 왜 이 긴 아까운 시 간을 보내느냐 그런 점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 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제대로 하자라는 뜻입니 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마 많은 위원 님들이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지금 북한 의 핵능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또 북한의 사정 이런 데 대해서 다양한 혼선스러운 정보들이 나 오고 있고 또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시시 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께서, 외교통일부장관 다 마찬가지지만 책임 있는 답변 을 할 분이 있어야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는 장수만 차관께서는 주로 국방 행정ㆍ경영 이 런 측면으로 해서 경제관료를 이렇게 영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관이 여 기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저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 니다.

○委員長 李龍三 예, 말씀하세요.

○**송영선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 는데 장관님께서 미리 선진당하고 선약을 해 두 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십시오." 하기는 곤란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께서 나오실 때는 국회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국회에 지금 특위가 여러 개 있지만 너무 잘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발전특위라는 게 지금 상황상 가장 적극 적인 활동을 그리고 협력을 정부 측과 국회가 해 야 되는 때인데 당과의 선약, 브리핑해 주는 선 약 때문에 시간이 좀 그렇다라는 것은 난감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명심을 해 주 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송민순 위원님 하시는 부분과 저 도 뜻을 같이합니다. 국방 쪽에서 말씀을 하실 분이 언제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은 답변하 실 수 없으면 따로 모아서 오후 2시부터 하든지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그렇지 않아도 아까 회의 시작 하기 전에 장관께서 말씀을 하셔서, 선진당의 이 회창 총재 보고일정이 잡혔다 해서 "그것 빨리 끝나고 오실 수 없겠는가?", 지금 그런 이유 때 문에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면 한번 이렇게 해 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 데 가능하시겠어요, 이 장관님?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시 에 속개를 하면 제가 14시부터 15시 10분까지는 가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송 위원님, 어떠세요?

○송영선 위원 그러면 전력계획국장이라도 나오 셔 가지고 답변하게 하십시오. 전력계획국장이나 전력본부장. 장관님을 대신해서 답할 수 있는, 이 쪽 전력문제라든가 핵미사일은 그분이 제일 총괄 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전력계획본부장이 나 오셔서 답변하게 하세요.

○委員長 李龍三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님 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범관 위원** 의사진행발언……

○委員長 李龍三 예, 말씀하세요.

○**이범관 위원** 지금 아마 국방관계에 대한 정부 답변 문제로 전부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 실 이런 문제는 국방부의 답변으로 해결될 문제 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수차 례에 걸쳐서, 지금 송민순 위원님도 계시고 송영 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다 나오고 답변 나올 내 용이 뻔한 내용들이고 또 장관이 와서 답변하신 다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되고 차관이 와서 하면 책임 없는 답변이 되고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니라 고 봅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왕 국방부장관의 일 정은 우리가 존경을 해 주는 것도 국회가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일부장관이 나…… 지금 외무부장관도 차관이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봐 가지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4시 이후에라도 시간 을 어떻게 내셔서 나오시도록 해 가지고 일정 소 화한 다음에 우리가 좀 늦게까지 하면 되지 않겠 습니까.

지금 장관님 일정을 그렇게 자꾸 채근하는 것 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 인 우리 특위 일정이나 이런 것이 사실 이런 문 제가 있었으면 오늘 상임위 문제를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날짜 를 다시 바꾸자고 하시든지 그렇게 할 것이지 이 미 정부 측과 합의를 해서 차관이 대신 나오도록 얘기된 것을 가지고 지금 시간을 끌 필요가 없고 일단 업무보고를 받아 보시고 또 나머지 국무위 원들 답변을 들어본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때 국방부장관 다시 오시도록 해도 큰 문제가 없 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龍三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 다.

- ○**문학진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 ○委員長 李龍三 간단히 좀 해 주세요.
- ○문학진 위원 저는 민주당 문학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방부장관 10시 50분에 나가신다고 그 러는데 누구 만나러 가시는 겁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미 태평양사령관입니다.
- ○문학진 위원 그게 언제 잡힌 약속입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이 일정이 잡히기 이전에 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11시부터 계획돼 있는 것을 30분 늦췄습니다.
- ○문학진 위원 오후 3시 반 선진당 이회창 총재 면담은 언제 잡힌 약속입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3일 전에 잡혔습니다.
- ○문학진 위원 우리 남북특위 오늘 회의 날짜 잡은 게 언제지요? 언제 잡았지요, 행정실장?
- ○**입법조사관 김학배** 지난주 금요일에 잡았습니다.
- ○문학진 위원 지난주에 잡았지요?

우선 태평양사령관은 우리 남북특위 일정 잡히 기 전에 약속이 되었다는 건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 ○문학진 위원 그다음에 선진당 총재는 그러면 남북특위 회의 날짜 잡힌 후에 일정을 잡은 거네 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문학진 위원 그것 안 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말이야! 아니, 국회에서 회의가 열리는 게이미 다 고지가 된 후에 선진당 총재한테 무슨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오전에 태평양사령관인가그것은 일찌감치 잡아서 아마 그 사람이 곧 출국하겠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문학진 위원 미국으로 돌아가겠지요. 그것은 양해가 될 수 있는데 선진당…… 그것도 혹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보고, 국회의 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 후에 오후 3시 반에 선진당 총재와 약속을 잡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제가 잘못 판단했나 모르 지만……
- ○문학진 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선진당 총재 약속은요, 조정을 하시고……
- ○국방부장관 이상희 특위는 10시에 시작을 하

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 르지만 그 이전에 끝나리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문학진 위원** 그것은 잘못 판단한 거지요. 남 북특위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장관 잘 아시잖아요. 국회 회의라는 게 공방이 격화되고 하면 본질의하고 추가질의하고 또 보충질의할 수도 있고 말이에 요, 밤늦게까지 갈 수도 있고 이것은 예단할 수 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회의가 잡힌 날은 하루종일 다른 약속을 못 하는 것 아 니에요. 본회의 대정부질문 때도 마찬가지 아닙 니까. 질의를 국방부장관한테 누가 하든 안 하든 거기서 대기하잖아요, 하루종일. 그렇지 않습니 까? 언제 누가 질의할지 몰라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뻔히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잡으면 이것은 장관한테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 는 거예요. 조정하세요. 안 돼요.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 못 합니다.

- ○권영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龍三 의사진행발언 자꾸 하시다 보면 회의가 좀 늦어질 것 같고, 지금 대두된 현안문제를 선진당 간사님이 급한 일정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 ○권영진 위원 잠깐만요.
- ○문학진 위원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할 수가 없지요. 저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 ○委員長 李龍三 권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 ○권영진 위원 지금 문학진 위원님이나 송민순위원님, 송영선 위원님 하신 말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세 분 장관님들 중에 두 분이서 다른 일정때문에 가시고 한다면 애초부터 남북관계특위를 오늘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석에 대해서 저는 허락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국무위원들 출석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장님께서 상의하셔서 일단 양해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양해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하면서 뒤집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의 권능에 대한, 또 우리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일정 잡거나 하실 때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남북관계특위나 국회가 있을 때 국회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하셔서 일정을 잡으시고요. 오늘은 위원장님 결

정하신 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도 장관께서 선진당 총재에 보고하시는 것도 우리 남북특위 일정 전에 잡힌 것으로 어제 들었 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아니라니까……

○**문학진 위원** 아니잖아요.

○委員長 李龍三 5분간 정회해서 양당 간사와 장관님하고 잠깐 의논을 할게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龍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임시회나 또는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임위가 많이 열립니다. 그런 과정에 특위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위 일정 잡기 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특위가 겹 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 보니까 많이 겹쳐 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왔다 갔다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양해 좀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께서 많이 비우시면, 요즘 특위나 상임위 진행이 생방송이 많이 됩니 다.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어서 가능하면 일정 보시고 특위도 참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 고요.

이상희 국방장관님의 일정은 지금 이렇게 의논 했습니다.

장관께서 선진당 총재한테 양해를 구해서 양해 가 되면 오후 시간을 조금 딜레이 해서 오후에 출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혹 양해가 안 되더라도 2시에 출석하셔 서 한 1시간 10~20분 정도는 시간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양해가 되면 충분 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고요. 혹 안 된 다, 불가피하다 하면 한 1시간 10~20분 안에 우 리 국방장관에게 집중적인 질의를 하셔서 빨리 끝내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지금 확인 중이니까 저쪽에서 답변이 오면 답변이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 진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이용삼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 현인택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 합니다.

금년 들어 연이은 북한의 강경 태도와 군사적 긴장 고조로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 이 있습니다. 이에 최근 남북관계 동향과 앞으로 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배포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최근 북한 동향, 남북관계 동향,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우선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

먼저 북한 내부 동향입니다.

금년 들어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군부대 시 찰, 경제 현장 방문 등 활발한 활동 보도로 정상 적인 국정 수행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 현재 군부대 시찰, 경제 현장 방문 등 총 23회 공개 활동이 보도되었는데 이는 예년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김정일 생일 기념행사, 최고인민회 의 제12기 대의원 선거 준비, 인민무력부장과 총 참모장 인사 등 김정일 중심의 체제 결속을 강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에서 후계 체제와 관련한 보도가 있 으나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최근 북한 경제는 만성적 공급 부족과 대외경 제 환경의 불안정성 증가로 경제정책의 보수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적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시장 규제조치를 실 시하는 등 계획경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금속공업 및 전력 부문의 증 산을 통한 경제 재건을 강조하는 한편 식량 문제 의 자체 해결을 독려하고 있으나 금년도 식량은 117만 톤 부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한해 남북교역의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대중 무역 규모는 급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통제 강화 및 과거 회귀적 국정운 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자본주 의 사상·문화 침투를 경계하는 선전 선동이 증 가하고 있으며, 신년 공동 사설에서는 사상 통제, 천리마운동의 노력 동원과 자력갱생, 그리고 중 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강조하는 등……

○委員長 李龍三 장관님, 잠깐요.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10시 50분인가요? 가셔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 업무보고도 장관께서 직접 하시고 가신다고 하니까 통일부 업무보고도 간단 히 요점만……

○**송영선 위원** 요약 중심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요약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을 올리고 그 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기관 및 유관국과의 협조하에 최근 북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국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보장과 통일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을 병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대화와 협력 추구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든, 어떤 방식이든 만 나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조건 없는 진정성 있 는 대화를 통해 건강한 남북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합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북한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호응을 촉구할 것입니다.

북한이 대남 비난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과 현

실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호응해 오 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대화가 제기되면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문 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 견을 들으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서는 배포한 자료 로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서면으로 읽어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숙 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국방부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동향 및 군사 대비 태세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대남 비방 및 압박 조치는 군사 분야 위주로 정리 차원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 나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 군부는 3월 29일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전통문을 통해서 남북 당국 간 대화와 접촉을 중단하고 우리 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차단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며, 이후에 지금까지우리 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하고있습니다.

11월 24일 장성급 군사회담 단장의 전통문을 통해서 12월 1일부터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 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1월 17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북한군은 전면대결 태세의 진입을 선언하고 NLL을 부정하면서 서해 해상분계선을 고수하 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1월 30일 조평통 성명에서는 정치·군

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 는 해상분계선 관련 조항을 폐기한다고 주장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총참모부 대변인이 우리 군대가 전면대 결 상태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 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북측의 언동들을 감안해 볼 때 추 후 추가적인 대남 압박 조치를 취하거나 NLL 및 DMZ 접적지역에서의 국지도발, 미사일 시험발 사. 추가 핵실험 등 실제 도발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입니다.

첫 번째, 김정일은 예년보다 2배 이상의 활발 한 현지 지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건재를 대내 외에 과시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경제 분야 및 군부대 방문 위주의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김정일 의 67회 생일 행사를 통해서 경축 분위기를 조성 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 다.

두 번째, 북한은 지난 13일 인민무력부장과 총 참모장을 전격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 했습니다. 이는 군부를 보강하고 군 내부의 분위 기를 쇄신하며 군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번 군부 인사가 북한 권력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심층 분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북한군은 동계 훈련을 강도 높 게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해 NLL 지역 해군 부대는 경계 및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긴 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핵 활동과 관련해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가 진행 중이며, 마지막으로 지난 1 월 말부터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 활동이 지속 식별되고 있습니다. 북측은 지난 06년 7월 발사 한 대포동 미사일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재발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미 군사 당국은 긴밀한 정보 공조 체제를 유 지하여 북측의 미사일 관련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무엇보다도 서해 NLL 일대는 북한군의 경비 정, 해안포, 유도탄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 가능 성이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연평해전 도발 사례, 최근 총참모부 및 조평통 성명에서의 NLL

언급, 그리고 NLL 일대에서의 전투준비태세 유 지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도발 가능성이 높다 하 겠습니다.

또한 성동격서(聲東擊西)식으로 NLL 이외의 접적지역에서도 예상치 못한 시간ㆍ방법으로 지 상·해상·공중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또한 있습 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북한의 수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 면서 실제 행동에 의한 군사도발 시에는 단호하 게 대응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측이 군사도발을 감행한다면 정전교전 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군사력을 운용하되 필요 성 ·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서 적정 수준으로 대응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 방향에 따라 평시부터 다양한 수 단의 도발에도 대비 가능한 해·공군의 상대적 우위 전력을 배치해서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측의 도발 시에는 현장의 지휘관이 가용한 합 동 전투력을 운용해서 현장에서 승리로 작전을 종결함으로써 확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지침 을 하달하였습니다.

한편 북측에 도발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 고 적의 유인성 전술에도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국방장관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 ○**국방부장관 이상희** 다녀오겠습니다.
- ○委員長 李龍三 다음 권종락 외교통상부1차관 나오셔서 현안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존경하는 이용삼 위원장님, 그리고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입니다.

오늘 아침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참석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외교부에서는 북핵문제 현황, 우리 대북 정책의 국제적 측면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핵문제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검증 문제입니다.

10월 3일 합의에 따라 북측이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이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서 채택 문제가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시 북측이 현 단계에서는 시료 채 취 등 검증의 핵심요소의 명문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서 검증의정서를 채택하지 못 하였고 이로 인하여 2단계 마무리 일정에도 합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능화 관련입니다.

불능화 이행과 관련해서 현재 총 11개의 불능화 조치 중에 8개가 완료된 상황으로서 8000여개의 사용 후 연료봉 중에 6000여개가 인출되었으며 잔여 사용 후 연료봉 인출과 원자로 제어봉구동장치 제거, 그리고 미사용 연료봉 처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 · 에너지 지원 문제입니다.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하여 2월 초 현재 북한에 대하여 중유 총 68.8만 톤 상당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잔여분 지원 문제는 추후 6자회담 과정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불참으로 미확정된 중유 20만 톤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여에 대해서는 6자 간에 원칙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검증 관련 진전 상황에 따라서 구체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체제 관련 사항입니다.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지도 원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현재 모 스크바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검증 문제, 미확정 중유 20만 톤 등 주 요 현안들이 6자 차원에서 논의되어 6자회담 과 정이 진전될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 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바바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양국은 정 상 간 통화, 외교안보수석 방미 등을 통해서 북 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의 공조를 강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클린턴 국무장 관의 방한을 계기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 책 일반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 다.

정부는 곧 금명간 있을 미측 북핵 담당 인사가 확정되는 대로 단기 및 장기 전략에 대해서 한미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지고자 합니다.

대북정책의 국제협력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발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을 통 해서 우리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또는 서해 상의 도발 등과 관련하여 북측이 이러한 도발을 실행할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 안정에도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엔 등 국 제사회와 협조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 니다.

마지막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탈북자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서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하여 체류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긴밀 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를 경유하는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이 강제 북 송되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지역으 로 추방되지 않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핵문제 그리고 대북정책의 국제적 측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 니다.

저희 외교통상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핵문 제와 관련하여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 제 구축,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안보 구조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위원장 님과 고명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3개 부처에 대해 서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 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또 15분 안에 못하신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 양해 하에 짧은 것은 마무 리하도록 하고 또 추가로 충분히 하실 질의 내용 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7분으로 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이석을 많이 하셔서, 또 혹 형편상 못 나오실 분이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 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권영진 위원 서울 노원을의 권영진 위원입니 다.

우선 통일부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 다 되셨습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강 다 했습니다.
- ○**권영진 위원** 그동안 학계에 계시면서도 남북 관계 문제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많아 봐 오셨고 하시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통일부장관으로 오셔서 남북관계에서 가 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어떤 점이 라고 생각합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북한이 나날이 위기 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권영진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혹시나 북한이 계속 말로 써 긴장과 공세 수준을 높여 가는데 이것이 실제 로 군사적으로 도발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안 보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몇 차례 되는 위협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통일 관계 장 관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 고 대비책을 세우는 일은 있었습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지속적으로 지금 대비 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권영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 ○권영진 위원 외교통상부차관님께 여쭐게요.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요, 북한의 대남 공세 관

련 국제사회 공조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는 느낌은 국 방부에서는 군사적인 도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현 장에서 단호히 대처하면서 이것의 확전을 방지하 겠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고 외교통상부도 이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것을 대처하는 문제는 어떻든지 간에 저희 안보 와 그리고 경제에 미칠 충격이 작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연에 이런 북한의 말의 위협이 말로서 끝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 금 특히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

지금 중국이나 미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몇 차 례 이런 대남 공세, 군사적 도발 위협을 하고 있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중국 의 입장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이러한 도발 가능 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주변국들도 우 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기타 여러 나라들 이 대변인을 통해서 논평한 것을 보면 우리와 같 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할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의사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도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 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주변국에 대한 위협일뿐만 아니라 북한 자신의 이익에도,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북한 이 깨닫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발할 경 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후과가 따를 것이 다 하는 점을 북한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 로, 사실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중국이나 미국 이 최근의 몇 차례 되는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나 전반적인 동아시아·동북아 평 화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그렇게 구체적 인 메시지나 액션을 취한 것이 확인된 게 있습니 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느 계기에 어떤 내용의 말 을 했느냐, 또 행동을 취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 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진 위원 공개하기 곤란하시면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부분들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정부가, 외교통상부가 지금 최근에 몇 차례 진행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구체적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조치를 해 줄 것을 얘기했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북한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 이 부분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넘어가시면 안 될 일입니다.

이게 특히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북한은 이렇게 위협하면 그냥 말의 위협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북한의 그동안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두면요, 우리가 '단호히 대처한다, 단호히 대처한다'고 얘기하면 이 부분들은 분명히 일어나고 그 후에 사후약방문격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외교적 노력을 좀 강화하셔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군 같은 경우는 우리의, 도발에 대한 군 당국의 사전 예비 태세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 또 도발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조기에 확전되지 않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 외교부가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국제사회를 통해서 비난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예방하는 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 혹여나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중국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막는 노력을 할 것이고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이 물밑으로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것은 아주 은밀하게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그런 내용을 다른 나라에게 잘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특수성과 민감성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이 되고 하면 통일부 직원들이 느끼는 당혹감이나 안타까움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북관계가 어떤 형태든지 대화와 교류협력이 지속되다가지금 중단 상태가 근 1년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럴 때 남북관계를 남북의 문제로만 풀려고 업무를 하기보다는 우리 대내적으로 준비하고점검하는 노력들을 이 시기에 하는 것이 굉장히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통일교육의 문제인데요, 어느날 통일교육 문제를 굉장히 간과했습니다. 통일부의 업무 속에서 남북 교류협력이나, 북한과의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대화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열성을 들여서 노력했지만 오히려 우리 내부의 남남 대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그리고 남북관계 안정과 통일을 대비하는 국민들의 생각 부분들을 준비하게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결과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히 청소 년들 같은 경우는 통일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이 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남북관계와 관련돼 서 갈등이 말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액션으로 나 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통일교육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에 통일교육이 좀 간과된 점이 있었고,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인식이 상당히 약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남북관계는 또 남북관계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통일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균형있는 통일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 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지금 와 보시니까 통일교육 예산 이 1년에 얼마로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구체적인 통일교육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과문합니다만……

○권영진 위원 아직 모르시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 17억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14억으로 줄었습니다. 통일부가 통일교육과 관련 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 부분들을 짜시고 그리고 정부 부처 간의 협의뿐 만 아니라 국회에도 그런 협력을 요청하시는 노 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 ○**권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유북한 연합인가요, 풍선 보내는 분들?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저 희가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 하되 또 한편으로 남북관계 상황이 이렇게 경색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급증에 서둘러서 원칙을 깨는 일은 저는 긴 틀에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 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북한을 자극하 거나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명분을 주는 일은 저 희 내부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요.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금 풍선을 공개적으로 날리거나 거기에 돈을 넣어서 보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불 필요하게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우리 통일부가 민간에 개입 해서 지시 통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분들 하고 정말 마음을 연 대화를 좀 하는 것이 중요 하다…… 물론 그동안 해 왔으리라고 믿습니다마 는 조금은 변화가 있도록 그분들에게, 물론 그분 들의 생각도 한 편에서 옳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라는 것은 작은 일이 큰 남북관계의 경색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 기 때문에 장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분들과,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전체적인 남북관 계를 위해서 좀 설득하는 노력을 가일층 해 주셨 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권 위원님 지적에 유념하 면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더욱 열심히 노력 을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 릴게요.

탈북자 문제인데요,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국 내에 와서 정착하고 현지화돼 갈 단계인데 사실 이분들의 실제 우리 지역 내에서의 삶은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자칫하다 보면 북쪽에서 자 유와 민주를 찾아서 온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의 하층민화하고 장기적으로 어려운 층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 으로 인원수가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종 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싶어도 어려운 단계에 있 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통일부 차 원에서 북한 탈북자들이 우리 남한에 와서 정착 하고 그리고 자립하고 그리고 정말 자유 대한민 국에 온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삶을 불어 넣는 대책을, 통일부만으로는 잘되지 않을 거예 요.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 혹시 계 획이 있는지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말씀을 좀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탈북자 문제가 그 대 책이 정말로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또 그 대처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비단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또 민간단체들과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로 잘 정착을 해서 우 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 는 조치들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위원** 통일부장관께 다시 묻습니다.

제가 외통위 회의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 있고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 고 북한이 말하자면 도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지난 1 년, 제가 보기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 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앞에서는 대화 하자……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내일, 내일

모레쯤 어디 다른 데 가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부적절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고, 이렇게 되면 남북 사이에 신뢰가 쌓이겠느냐 이거지요.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신뢰가 축적이 돼 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앞에서 얘기 하고 뒤에 가서는 '뭔 새끼' 해 버리면 이게 신뢰 구축 자체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현인택 장관께 북한과의 이런 꼬여 있는 관계를 풀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과거 정부에서 가동을 했던 대북 핫라인이 있느냐, 제가 지난 외통위 때 물었습니다. 현 장관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문학진 위원 그런데 현 정부의 통일부장관은 대북 항라인이 없다고 외통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몇 달 전,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몇 달 전 외통위 회의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한테 드린 적 있습니다.

'핫라인 필요하지 않느냐, 가동하고 있느냐' 했더니 유명환 장관 답변이, 지금 여기 차관 계시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있다' 그랬어요, 핫라인 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핫라인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 장관한테 공개적으로 저쪽 북쪽의 핫라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성명을 밝히시기 곤란하면—있다고 하니까—김가인지 박가인지 성이라도 한번 대 봐라, 전혀 대지를 못했습니다. 있다고 해 놓고.

사실이 뭔가요?

외교통상부장관은 핫라인이 있다고 그러고 또 갓 취임한 우리 통일부장관은 없다고 그러는데 현 장관,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제 관점에서는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문학진 위원 없지요?

그러면 우리 외교통상부 권 차관, 어때요? 외교통상부장관이 핫라인 있다고 그랬는데 차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저는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 있다고 말씀하신 때에, 하셨다면 그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때 그 핫라인의 개념을 서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문학진 위원** 항라인이라는 게 무슨 개념 규정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말하자면 필요할 때 또는 지금처럼 관계가 꼬여 가지고 미사일을 쏘네, 서해상에서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네 없네, 이렇게 위기국면이나 이런 아주 따끈따끈한 현안이 있을 때 필요한게 진짜 글자 그대로 따끈따끈한 핫라인 아닙니까?

무슨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있다, 없다 차 관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통상적으로 핫라 인이라고 할 때는 국가지도자와 지도자 간에 또 는 지도자에게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는 이런 라 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장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남북 간에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느냐, 판문점을 통해서 연락하는 채널이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문학진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지난번 현인택 장관의 답변이 팩트가 맞다라고 보는 겁 니다.

왜냐하면 판문점을 통해서 이렇게 해 왔고 그 것이 저는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 건지 잘 모 르겠지만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이고 있는데도 남 북이 제대로 된 얘기, 내용 있는 얘기, 이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이런 시점에 핫라인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통일부장관이 그것을 정확히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장관 되고 나서 이런 얘기하셨지 요?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국면인데 장관이 인 사청문회 때도 수도 없이 한 얘기입니다. '진정성 을 가지고 북에게 접근하겠다'이 진정성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북과 만나겠다, 그 계획을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마지막 말씀 좀 다시 말해 주십시오.

○문학진 위원 계획,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태 로든'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말씀 자체를 굉장히 의 미 있게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닫혀 있는 남북관계를 뚫고 경색국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밝힌 점이 매우 구체적인 방안이라 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우리 현 장관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 통령께서,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냥 기다 리는 것이 능사인 것으로, 그것이 최고의 전략이 다라는 표현을 아마 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 금강산 총격 이후로 북한의 소위 대남 비방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고 대화의 문을 점점 닫아서 이제 완전히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사실 대화를 닫은 쪽은 북한이고 저희들은 열려고 하는 쪽입 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현실 인식은 저렇게 북한 이 계속 위기를 에스컬레이트하고 대화의 문을 닫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현실 표현이겠고요. 그냥 마냥 앉아 서 기다리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지는 말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문학진 위원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너무 한가하다 이렇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남북 관계가 이렇게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의 최고통수권자가 기다리는 것이 남북관계 에서의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한가하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 통일정책의 수장이 된 우 리 현인택 장관께서 젊은 패기를 가지고 글자 그 대로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뛰어다니면 서 찾아다니면서 북쪽을 접촉하고 문제의 해결점 을 찾아 달라, 이 점을 부탁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다음에 정확한 명칭이 이게 맞 는지 모르겠는데 통일부에 정책자문위원인가 하 는 분들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십수 명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문위원들을 현 정부의 말하자면 통일정책과 괘를 같이하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 들로만 교체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민화협 대표인가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뺐더라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인수 위 위원장이었던 이경숙 전 숙대 총장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물론 현 장관 임명되기 직전의 일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정책자문회의를 꾸린 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들끼리만 모여 가지고 똑같은 얘기만 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거지.

이 나라의 통일부가 목적이 뭡니까? 남북통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면 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해 서 통일부가 정책자문위원들을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의견을 구하고 하는 과정인데 이게 그냥 도긴 개긴 비슷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무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나는 분명히 이 인선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는 그 점에 대해서 는 보다 균형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인사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면서 저희들이 통일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문을 받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지요. 우 리 현인택 교수님 잘 아시는 얘기일 거고, 한 쪽 날개로만 해 가지고는 잘 날 수 없지요. 잘 균형 을 잡아서……

그리고 우리 국민 사이에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또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편차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그것을 두루 아울러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자세가 통일부로서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지금 누구 만나러 가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인데 이상희 국방장관이 작년 8월에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인가요, 이 연 습기간 중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지금 이상희 장관이 안 계시니까 이상 희 장관이 한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발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먼저 국방부차관이 짤막하게 답변을 하시고—내가지금 얘기합니다—그다음에 같은 국무위원인 통일부장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외교부차관 견해 밝혀 주시고, 이런 순서로 합시다.

지난 8월 프리덤가디언 연습기간 중에 북의 도발 정후를 포착할 시, 도발했을 시가 아닙니다. 도발 정후를 포착할 시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투사해 도발을 억제할 것이다, 이게 대북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도 들리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세 분이 나란히 잠시 후에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상희 장관이 또 이런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미연합군의 대북 군사작전을 가능 하게 하는 작전계획 5029의 재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지정한 대로 차례로 답변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장수만 국방부차관입니다.

말씀하신 도발 정후 포착 시의 상대적인 우위 전력을 배치를 해서 도발을 억제하겠다 하는 것 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발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약할 적에 도발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하는 것이 필요하 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학진 위원 잠깐만요, 차관. 도발 정후를 포착할 시라고 전제를 달았거든요, 도발했을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정후가 보이기만 해도 남쪽 군대가 북을 먼저 때릴 수 있다, 이런 뜻인 겁니까?

○국방부차관 장수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컨대 저쪽에서 우리 서해안 NLL 근처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징후가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의 대응 전력을 조금 더 증강 운용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 습니다.

- ○**문학진 위원** 그다음에 작계 5029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요?
- ○국방부차관 장수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문학진 위원** 잘 모릅니까? 그러면 지금 전략 본부장 오고 계세요?

왔습니까?

- ○국방부차관 장수만 예.
- ○**문학진 위원** 그럼 본부장, 작계 5029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장 김기수 작전계획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재추진하느냐의 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군에서는 급변사태든 아니면 정규전이든 비정규전이든 모든 가능한 그런 위협에 대한 대비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문학진 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문학진 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잠시 후에 통일부장관하고 외교차관 답변 바라는데, 이상희 국방장관의 일련의 발언들은 이런 남북경색 국면에서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괜히 북한테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그런 불필요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현인택 장관하고 권 차관하고 답변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 입장으로서는 우리 국 방부차관과 또 실무자가 답변하신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께서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 으면 하고요.

그 문제는 저희 부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권위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또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학진 위원 역시 짐작한 대로네요. 타 부처 장관 문제니까 언급하기가 곤란할 것 같다는 답 변이 나오리라고 제가 기대했어요.

권 차관, 권 차관도 비슷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저도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장관님이 자신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발이 발생했을 때 응징하는 것이라든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 요한 것은 전쟁을 하지 않도록, 도발하지 않도록 억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군을 통수하고 있는 국방 부장관 입장에서 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 렇게 생각합니다.

- ○문학진 위원 국방부장관 이따 2시에 돌아옵니 까?
- ○委員長 李龍三 예.
- ○문학진 위원 일단 마칩니다.
-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영우 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최근에 미국 고위관료들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언급들을 자주하고 있습니 다.

제가 외교통상부차관께 질의합니다

미국은 연이어서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미국의 일부 군사 당국자나 또는 정보 당국자들이 그런 취지의 발 언이나 문서가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입장 또 미국의 고위인사들 이 공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그러한 언명이나 언급이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서 인정한다 하는 어떤 정책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정 보 당국이니까 또는 군사 당국이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북한이 스스로 핵실험을 감행했고 또 스스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 다고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정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다는 자세에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미국 고위관료들의 그런 언급이 있은 이후에 그런 언급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관해서 우 리 외교통상부나 우리 외교통상부 측에서 미국 고위관료들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논의, 재검토

같은 것을 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그런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왜냐하면 우리 외교통상부장관께 서는 지난 10일 외교통상부 현안보고 때 핵무기 보유 여부는 검증 없이 알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간에 미국과 한국이 갖 고 있는 기초정보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과연 기 초정보가 똑같은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 습니다.

기초정보가 똑같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글쎄요, 그 기초정 보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위한 물질을 소유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자신이 스스로 신고를 했고 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성공했다 또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다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정황이나 현재까지 나타난 증거들은 북한이 핵무 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 준다고 봅니다.

○김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위관료들이 계속 그런 언급을 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미국의 북한 핵 문제 관련한 정책이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바뀌 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

비핵화입니까, 비확산입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우리는 비핵화 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비핵화가 이루어 질 때 비확산도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 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확산의 유혹 이 있기 때문에 비확산을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핵무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비핵화가 돼야 됩니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은 우리 국내 일각에서 미국의 정책이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 에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사람들 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밝혔고

이번 아시아순방을 계기로 밝혔듯이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검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핵화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이것은 차관께서 직접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국방백서가 새로 발간이 되는데 지난해까지 20006년 백서에서는 플루토늄 $10\sim14$ kg으로 핵무기 $1\sim2$ 개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핵무기 제조했을 가능성, 이것이 이번에 발간되는 백서에서는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외교통상부하고의 논의라든지 핵보유 여부를 추정한다고 했을 때 국방부와 외교통 상부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지금 국방백서 발간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양 부처가 협의를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평소에 늘 안보조정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무회의가 있고 장관급 회의가 있기때문에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양 부처 간에 일반적으로 늘 협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국방백서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문구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상황을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중앙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가 없이, 어떤 공통된 입장이 아니면 나중에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차관 장수만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국 방부 정책기획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짤막하게 좀 해 주세요.

○국방부정책기획관 권오성 국방부 정책기획관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백서에 이렇게 기술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처리를 했다는 분명한 사실, 그다음에 한미 간에 공조되어져 있는 플루토늄의 보유량, 그리고 06년도에 있었던 핵실험 사실, 이세 가지만을 사실대로 명기하도록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외교·통일·국방 모여서 합의가 된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옛날에 백서에 담았던 핵무기 내용을 삭제한 이유는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처럼 핵무기 보유국에 관한 문제가 북한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내적, 국제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삭제하였음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이해가 잘 갔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북한은 아주 강도 높은 대남 공세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면대결태세 진입이라든지 또 북한이 정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고수, 그러니까 우리 측의 NLL을 무시하는 그런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강경한 발언의 배경이 우리 정부의 6·15, 10·4선언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6·15 또 10·4선언을 부정하는 어떤 행위나 조치를 취한 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영우 위원 그러면 왜 그런 강경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저희 정부의 진위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기존의 모든 합의와 더불어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합의를 존중하고 그 이행 절차를 같이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지금 이제 남북관계가 좀 경색돼 있는 데 대해 북한의 경우에는 아마 현 장관의 취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돌파해 내기 위해 우리가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혹시라도 무슨 남북 장관급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한 시기에 제의 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대화를 하겠다는 매우 적극적이고 전향적 입장을이미 밝혀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대

신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지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이 한국에 도착하면서 북한 김정일 체제의 어떤 세습체제 후계 구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 다.

상식적으로 볼 때 세습체제가 확립되기 위해서 는 그 후계자에 대한 일정 정도의 훈련이라든지 또 지배세력에 대한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텐데 지금 우리가 볼 때 북한으로서 그런 세습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 었나, 특히나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김정일 위원장이 세 아들 중의 한 명에 게 세습을 하게 한다면 그것이 공고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세습체제가 될 수 있 을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의 세습체제라든지 후계 구도 문제에 관해서 어떤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답변을 드리는 것 은 적절치 않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 겠습니다.
- ○김영우 위원 얼마 전에 북한 인민군 고위관료 들이 교체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시각에 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북한의 내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렇게 판단을 하고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 ○김영우 위원 그게 일상적인 인사라고 해야 됩 니까, 아니면 무슨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특별 한 인사조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 의 내부 인사문제를 우리가 너무 확대하거나 축 소하거나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로 저희들은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김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龍三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송영선 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통일부장관님 그 자체대로 답한다는 것 좀, 제가 몇 번을 주문 하는데 좀더 명쾌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게 뭐

제한된 고위급에서 회전문식 인사라는 부분을 분 명히 짚어주고 우리 쪽에서는 평양방어사령부가 대단한 무슨 야전사령관인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나와 가지고 실제로 야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바뀌었다 이럴 때도 명확하게 통일부에서 얘 기를 좀 해 줘야 됩니다. 감출 것은 감춰야 되지 만 이러지 않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 얼마나 많 은 학자들이 나와서 16일 날 미사일 뜬다 19일 날 뜬다 25일 뜬다, 어느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 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연이어서 제가 간단히 통일부장관님, 국 방부장관님 안 계시니까 일단 답해 주시고 외통 부에서도 답해 주십시오.

그냥 한 가지 질의니까 간단히 '예스', '노'로만 해 주십시오.

셀리그 해리슨이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 북한 에 가서 아주 고위급들을 다 만났습니다. 뭐 10 분, 20분이 아니고 6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많 이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 중에 다 이름을 댈 필 요 없이 나흘 동안 박의근 외무성장관하고 김영 태 최고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는데 공통적 으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근도 만났고 했는데 중국에 낸 북핵 신고서에 넣은 30.8kg의 플루토늄은 이미 핵무기로 만들었다라 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해리슨한테 갔 다 와서 면담한 결과를 2월 2일 날 직접 들었습 니다.

답만 해 주십시오. 허풍이라고 생각합니까? 북 쪽이 허풍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부터 답해 주십시오.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허풍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 ○국방부차관 장수만 글쎄요, 사실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송영선 위원 그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정 말 국방부가 지금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요? 허풍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셀리그 해리슨의 말 그대로 우리가……
- ○송영선 위원 허풍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 가 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정 확한 제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외통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저도 그것을 판단할 자료를,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습 니다.

○송영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답을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주셨습니다. 거기 앉으신 분들 다 북한 핵무기 가졌다고 인정하시면서, 하면은 군비통제 쪽에 우리가 말려들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안하시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 군사력 증강, 북한에 돈 주는 것에 대해서'노'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하고 국방부 역시 같은 질의입니다.

지난 10월 '김정일 뇌졸중으로 수술한 뒤에 못일어난다.' 국정원 정보는 '양치질할 수준이다' 등등으로 거의 옐로우 페이퍼(yellow paper) 수준의 소문 내지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나 국방부에서 10월 초부터 나온 김정일 사진을 분석해 본 적은 있겠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 ○국방부차관 장수만 예, 있습니다.
- ○송영선 위원 이 사진 전부 다 진짜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김정일 사진 진짜입니까?

○국방부차관 장수만 어떤 사진인지 잘 보이지 는 않습니다.

○송영선 위원 아니, 10월 11일부터 모든 언론에 나오는 김정일 사진 말입니다. 모든 언론에 나오는 김정일 사진.

굉장히 많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사진만 띄우면 전부 다 온갖온갖 분석을 다 하는데 제가 분석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다른 견해가 있는지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10월 11일, 사진이 8장이 나왔습니다. 대충 그러고요

10월 11일 뭐 했느냐, 이 사진에서 설명한 대로 김정일 동지께서는 북한 인민군 제821부대 산하의 여성포중대를 시찰했다라고 했는데 이 시찰 사진을 보면 10월 2일 사진의 다른 사진과는, 지금 사진이 너무 많아 가지고 헷갈리는데 이 사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0월 11일입니다. 다른 데 나

오는 사진과는 풍경이 상당히 다릅니다. 풍경이 다르다는 것은 이 사진은 완전히 여름풀이에요. 그런데 10월 11일 다른 사진에 보면 풀이 누럿누 럿한 데가 나옵니다.

또한 이날 방문해 가지고 여성포중대를 시찰했다 해 놓고 사진을 어디 가서 또 찍은 게 나오느냐 하면 뭐 여성포중대라고 해 놓고 이건 여성포중대가 아니고 딴 사진 같습니다. 그런데도 10월 11일로 나와 있어요. 여기의 김정일을 보면 굉장히 늘씬해요, 이거 김정일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늘씬하고 그림자가 없어요, 다른 데는 그림자가다 있는데. 또 뒷줄에 장병들이 서 있는 이 단이,여기만 단의 색깔이 다릅니다.

또 11월, 제가 일일이 다 사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2일 하나 더 예를 들어보 겠습니다. 11월 2일 날 사진은 또 열 몇 장이 나 왔는데 세 곳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김정일이 보시다시피 축구를 관람하는 사진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옷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축구를 관람하고 난 뒤에 김정일이가 고위간부에게 지시를 하는 사진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칼라와 소위 말하는 양복의 칼라와 이 칼라는 다른 옷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그림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림자가 전혀 없고요.

11월 2일 날 다른 사진에는 복장이 전부 다 겨울옷을 입었어요. 이거 겨울옷이 아닙니다. 이 복장도 겨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11월 2일 날 입은 똑같은 사 진이, 입은 양복이 속의 티셔츠까지 똑같은 게 11월 25일 날 또 나옵니다.

자, 길게 설명하면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강도, 12월 말 자강도를 방문하는 사진부터는 사진에 일관성이 상당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의 사진은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을 가져오거나 김정일 사진만 가져와 가지고 끼워 넣거나 아니면 김정일이 아닌 사람을, 대체로 여기 보면 김정일하고 그 옆에 여성 한분만 뒤에 단이 다르고 그림자도 없어요.

이거 알고 있으면서 뭐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분석도 안 하고 국정원에서 양치질하는 수준이라 하면 양치질하는 수준이고 돌아다녔다 하면 돌아다녔 고 뭐 무슨 부대에 갔다고 하면 무슨 부대에 갔 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국방부 정보분석실 나왔어요?

- ○국방부차관 장수만 예, 그렇습니다.
- ○**송영선 위원** 어떻습니까? 일어서서 간단히 얘 기해 주세요.
- ○국방부차관 장수만 합참 정보본부장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합동참모본부국방정보본부장 황의돈** 합동참모 본부국방정보본부장입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진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선 위원** 그러면 분석했는데 사실은 상당 한 신뢰성에 문제가 간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 지요?
- ○합동참모본부국방정보본부장 황의돈 예, 인정 합니다.
- ○**송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확실히 하고 계시지요?

- ○합동참모본부국방정보본부장 황의돈 예, 대비 하고 있습니다.
- ○송영선 위원 자, 그러면 언론이 이렇게 나올 때에 국방부가 전면에 서서 나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무책임하게 계속 나가 는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혹시라도 오도될 가능 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비밀리에라도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까?
- ○**합동참모본부국방정보본부장 황의돈** 국방부에 서 그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송영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미 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이 무슨 레고 장 난감인 줄 알고 많은 교수들이 나와서 이틀 만에 당장 개발해 가지고 발사대 설치해서 날리는 것 처럼 알고 또 핵연료라는 게 액체로 돼 있어서 이 추운 날씨에 안 된다는 것, 평안북도나 함경 북도가 더 어렵다라는 것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계속 나오니까 메이저 신문에서조차 매 일매일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예요.

양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국 민들에게 안보의식도 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대변인이 나와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의연하게 대한 다'라는 말로만은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경제에 위험이 안 되도록까지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비공식적으로라도.

- ○합동참모본부국방정보본부장 황의돈 예.
- ○송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PSI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PSI, 어제 통일부장관한테 일일이 다 물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하고 겹쳐지지만 국방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장관님 오시면 다시 질 의하려고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금 사진은

PSI 질문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남북 해상항로대인데 저것이 2005년 8월 이후 부터 남북 간에 배가 지나가는 항로입니다. 16개 거점을 거쳐서 북쪽에서 북쪽, 남쪽에서 북쪽, 제 3국을 경유해서 북쪽에 들어가거나 북쪽에서 이 항로대를 거쳐서 어느 지점을 거쳐서 그다음 제3 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밑에 부산, 울산, 포 항 보이지요? 이 항로대에서, 전략기획본부장님 여기 나와서 답해 주십시오. 이 항로대에서 부산 까지가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장 김기수** 어디 말 씀하시는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 ○**송영선 위원** 그러면 울산까지는 몇km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항까지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

작전본부장 부를 필요 없습니다. 국방부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인지를 설명하겠습니 다.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이후에 배가 지나간 것이 716회입니다. 단 한 번도 검문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남북해운합의서 제6조와 제8조에 의하 면 임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검 한 번도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716회 중에서 145회가 북한 소유 선적이 아닌 제3국 소유 선적입니다. 그 선적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서 임검할 권한이 없습니 다. 그런데 그 145회 왔다갔다 한 해외 선적 중 에서 열일곱 차례가 전기아연, 강철 이런 미사일 제조와 핵 시설을 하는 물질을 실어다 날랐어요.

단 한 번도 국방부가 임검을 안 했을 뿐만 아 니라, 제가 저 지도를 내는 심각한 이유가 있습 니다. 이거는 윤광웅 장관이 '예스' 해 가지고 지 금까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만나고 하자 해서 두 달 이후부터

되는데 지금 저 항로대에서 부산 3함대사령부까지가 22km입니다. 울산까지가 35km입니다. 포항까지가 40km입니다.

'설마'그럴 일이 아닙니다. 임검도 한 번도 안 받은 북한 배가 부산에서 쾌속 고속정을 내려서 3함대사령부까지 가는 데 17분밖에 걸리지 않습 니다. 울산까지 가는 데 25분 걸립니다. 울산에 포철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산업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부산 함대사령부 는 '날 잡아 잡소'하고 열려 있는 상태나 같습니 다. 포항, 마찬가지입니다. 증원군이 들어올 때에 포항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자, PSI를 하겠다고 외통부장관님, 국방부장관 님 1년 내내 '검토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PSI에 참관 내지 참여를 하려 고 하면 남북해운합의서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에 서 상치가 돼요.

남북해운합의서에는 남-북, 북-북, 제3국 경유의 남북 오가는 북한 선박인데 제3국을 경유해서 남북 사이를 오가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PSI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재 방법을 보면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하면 추방만 가능합니다.

이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PSI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기라든가 무기 제조에 필요한 것을 가져갈 때는 압류나 나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이 내용을 단한 번이라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러고 통일부는 역시 단 한 번도임검도 없이 임검 안 한 국방부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지도 않고, 북쪽은 지금 온갖 선언을 다 하고 온갖 위협을 다 하는데도 토털리 무방비 상태로 북쪽 선박이 지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부서에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세 부서가 아주 즉각 검토를 해서, 'PSI 검토한다'이런 형식적인 말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운합의서를 폐기하든지 조항을 적극 개정해서 PSI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사 PSI에 참여를 못 한다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장 김기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시 는 말씀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송영선 위원 아니, 임검하신 적 있어요?
-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장 김기수 임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 ○송영선 위원 하신 적 있는지 없는지만……
-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장 김기수 그렇지 않고서라도 대비 계획은 또 적절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아니, 지금 무방비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대응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제공할게요.

북쪽에서 남포에서 원산 사이로, 미사일 기지에서 한국까지가 몇㎞인지 아세요? 7㎞입니다. 무수단리까지 물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기아연을 몇 번 실어다 나른지 아세요?

그러니까 무방비는 아니다라는 말씀은, 그렇게 답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NLL을 무방비로 던져 놨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장 김기수 예.

○委員長 李龍三 예.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2시02분)

○委員長 李龍三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사 회의에서는 최근의 남북 관계 상황을 감안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정부와 북한 측의 남북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오늘 회의에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작성한 결의안을 상 정·처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보면 제안이유 중에 2008년 1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 1월 30일입 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지금 정정되어서 배포가 되었어 요.

○委員長 李龍三 그렇습니까?

이 의사일정 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신가 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남북간 긴장상태 해소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委員長 李龍三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남북 간 긴장상태 해소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주성영 위원님께 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주성영 위원입니다.

현재 금강산관광의 중단, 남북 간 열차 운행 중지, 개성공단 상주 인원 제한,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 등 북한의 일련의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 발언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늘 간사 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용삼 위원장님과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이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중 주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남북 쌍방 모두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야기하는 언행을 삼가할 것을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 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한의 긴장과 대립이 우리 민족의 이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전 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남북 당국이 분명히 인식하고, 남북 관계의 회복 및 발전에 대해 한 반도 문제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 고 그 주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단된 남북 간 대화의 재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신속하게 추진하 여, 향후 남북 관계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 져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과 북한 당국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남북 관계 정 상화를 위해 중단된 금강산관광 문제의 해결 및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의 정신에 입각하 여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책을 취해 나갈 것 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龍三 예, 주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남북간 긴장 상태 해소 및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 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결의안 중에 오탈자가 있으면 위원장이 실무자와 협의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네 분 질의하셨는데 오후는 2시쯤 속개를 해야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정각에 속개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꼭오전에 하셔야 되겠다는 분이 계시면 한 분만 하고 아니면 여기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龍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께서 곧 도착할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국방부장관께서 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곧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에게 먼저질의해 주시고 외교부차관께는 뒤에 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아직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외교·안보·통일을 담당하시는 세 부처 장관님들께서 같이 참석을 하셔서, 제가 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아침에 출석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침에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얼마나 직결 돼 있느냐 하는 것들은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저녁에 미국 CNN 방송을 보니까 클린턴 신임 국무장관이 한국에 오는 뉴스를 한창 하면서 한반도에 지난 10년간 가장 위기가 고조되어 있다 하는 것을 헤드라인으로 해 놓고 뉴스보도가 죽 됩니다. 지나가는 말이면 흘러가지만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밑에 딱맞춰 놓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물론 다른 나라들이 다 어렵지만 우리는 안보상황 때문에 경제의 취약성이 같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 서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각료들께서 우리 문제 를 잘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진정한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관계정상화는 물론이고 아주 폭넓은 방법으로 문을 열어 놓고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편으로 하고 어제는 또 바로 '북한의 후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북한의 내부사정 이런 것들이 핵 협상 이런 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당히 상충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미국 국무장관이 이런저런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지 금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정세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일에서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국방부, 통일부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야기하는 북한의 내부정세가 불확실한 상태로 가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들이 핵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하는 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미국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평가하고, 공동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같이 평가하고 분석하고 공유하는 정보를 어떻게 대외적으로 언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조율을 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차관께서 조 금 있다가 오시겠지마는 실무자 있지요? 외교부 실무자 없습니까?

지금 실무자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이 위원회를 하지 않을 거면 몰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뜻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잠깐만요, 외교부차관이 늦는 다 하더라도 실무자도 지금 나온 사람이 없어요? 어디 국장 한 사람 나온 사람이 없어요?

○**외교통상부대북정책협력과장 진기훈** 저는 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장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지금 과장 혼자 있는 거예요? ○외교통상부대북정책협력과장 진기훈 예.

○委員長 李龍三 앉으세요.

○**송민순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자세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과장이 제가 지금 질의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통일부장관께서는 어저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고 국방부장관님과 외교부 차관님,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李龍三 과장한테 답변받으시려고 그래 요?

○**송민순 위원** 아니, 과장이 아니고 나중에 차 관이 오면 답변하라 이거지요.

○송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그래요.

○**송영선 위원** 정말 도저히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이렇게, 어쨌든 간에 대북정책 에 대해서는 당마다 다르고 또 정부와 국회와도 때에 따라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발 나아가면 한반도 전체의 문제인데 지금 외 교통상부의 입장은 차관님은 바쁘다손 치더라도 이 태도는 남북관계특위를 있으나마나로 생각하 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하 셔야 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태 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委員長 李龍三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요. 과장 이 책임자도 아니니까 이따 차관 오시거든 그때 다시 얘기하시고, 우선 국방부장관하고 통일부장 관이 계시니까 두 분 답변을 먼저 받기로 하시지 요.

○송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통일부장관, 간단하게 말씀해 주 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 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정보가 있느냐? 저희들은 그 정보에 대해서는 면 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미 공동평가를 하느냐? 제가 이 문 제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어떤 적절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외교통상부장관의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대외적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도 아마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외교부 차원에 서 적절하게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국방부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우선 먼저 국방부장관으로 서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다 고려돼야 한다는 데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지금 한미 간에 어떠 한 분야가 공조되고 있느냐에 관하여는 지금 말 씀하신 대로 외교, 미 국무부 또 국방, 미 국방부 여기에는 충분한 공조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 을 하고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국방 문제인 만큼 북한에 대하여 그것이 정규전 징후인가 또 불안정 상태가 있는가, 침투도발에 관한 징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미 국방부 DIA 또 태 평양사, 연합사 등등과 일일 충분한 정보공조 또 대책공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미 간에 어떻게 발표를 하고 표현을 할 것이냐의 조율도 예를 들면 북한 핵과 장거리 미 사일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협조해 나가 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 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미국이 리드해서 발표하고 우리가 맞추어 나가는 듯한 인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 한 지위, 역할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결 의안을 여야가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데 대한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는 그리고 그것을 적 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는 데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 핵 능력 가지고 제가 국방장관님께 자리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 린 것인데 북한 핵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 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확 연하게 변한 것은, 지난 1년 사이에 미국 정부의 북한 핵 능력에 대한 내부평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인 발언의 용어선택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인식 이것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지요?

국방부장관님!

미국의 입장이, 지난 1년 동안 대외적 언급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내부적인 평가 를 놔두고라도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 시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 핵 능력과 북한 핵무 기 지위에 관해서는 작년하고 지난 1년간 특이하 게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민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미 국의 당국자들이 과거에는 '핵 능력을 우려한다. 핵개발을 우려한다. 또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 그대로 두면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수년 내에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래 나온 것은 전부 사실상 북 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일단 법적 지위를, NPT 체제상의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 사적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기정사실 화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 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 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북한의 NPT 체제상 핵보유국 지위에 관한 것이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 또는 핵무기능력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런 국면에 있어서도 우리정부가, 우리 국방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여기국회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과 미국의 당국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한미 간에 이러한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현격한 간격이 생기느냐, 현격한 간격이?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가 좀 분명히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나 정부 당국에서 협력하는 데니스 블레어 DNI 국장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이나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등 군사적 목적보다는 억지와 국제적 위상 그리고 공세적 외교 등을 위한 용도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거기 배석한 국방부 간부들로부터 잘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패배할 상황이라 든지 또는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되지 않는 한은 핵무기를 사 용할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것, 보 고 잘 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송민순 위원** 우리 국방부,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우선 첫 번째, 핵무기의 표현의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의구심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측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표현의 수위가 어떤 것은 뉴클리어 웨편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그다음에 뉴클리어 디바이스(nuclear device) 이런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의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고, 다만 북한이 핵을개발하고 또 무장 했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면에서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또는 한국의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도 그렇게 답을하여 왔습니다.

블레어 제독이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핵을 어떻 게 평가하는 것인가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서 사용한다면 어느 시기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군사적으로 초기 단 계에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체제 몰락 위협을 받는 그 시기에 사용할 것인가 이런 사용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평가와 자신이 생각 하는 사용 시기를 얘기한 걸로 저희는 인식을 하 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국방장관님, 그건 말씀이지요. 우리가…… 여기에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가, 미국의정보당국을 총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소위 인텔리전스 자(intelligence czar)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백악관에 앉아서낸 보고서, 의회에다가 낸 보고서에서 이야기한겁니다. 그걸 갖다가 개인적인 언급이다 이렇게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또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니, 블레어가 판단한 그러한 평가와 사용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송민순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평가와 사용 시기도 있지만 보유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것을 전제하고 하는 거거든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블레어가 한 것의 앞부분에 보시면 북한은 대개 6~7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정확히는 아마 6개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한 표현이 그 앞에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블레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게이츠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기고한 글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님께서는 그것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지 하시면 그것은 우리한테 혼선을 주는 거라는 점을 유념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당국자들의 의견에 우리 국방 부장관께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동 의를 한다는 뜻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은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대 비 태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 였다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송민순 위원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계시지 않 는 사이에 대신 국방부의 정책기획국장이 이야기 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협상이나 전 략 차원에서, 또 NPT 차원에서 맞는 거고 거기 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북한의 기술적인 평가에 대해서 한 미 간에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와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부에서 가끔 보면 말씀이지요, 여러 장 관들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이미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한다 이 렇게 돼 있어서 그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거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 는 모든 핵무기 이야기한 것은(소위 우리가 국제 관계에서 협약을 만들 때 일종의 캐치 올(catch all)이지요) 북한이 만약에 가졌다면 그걸 다 폐 기해야 된다는, 빠져 나가지 못하는 캐치 올 클 로즈(catch all clause) 그것에 따라서 집어넣은 거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상당히 자신 있게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 이 NPT 체제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이, 그렇게 인식이 될 때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이 핵확산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리고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일본 정부의 안팎에서 일본의 핵 능력에 대해서 제기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시고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북한이라는 하나의 상대만 볼 게 아니라 한반도와 주변의 안보 지형에 대해서 어 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그런 폭넓은 시각을 가 지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 이 되는데 국방장관님과 외교부차관님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상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북

한의,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가졌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군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비 태세를 강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 대외적인 어떤 원칙 또 저희가 대비하는 것은 수준 차이를 두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 을 합니다.

○송민순 위원 외교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북 한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을 완료했느냐 안 했느 냐와 관련해 가지고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자기 네는 핵무기 개발을 다 완료했다라고 주장을 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나 국방을 맡고 있는 인 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사자가 가지고 있다 하는데 '저건 허풍이다.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허풍일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것을 가지 고 있다고 일단 수용을 하고 그런 가능성을 염두 에 두고 필요한 대비를 하는 게 안보를 맡고 있 는, 정보를 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미국 내 여기저기에서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언 급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려진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볼 때 북한이 만약 이 시 점에 핵무기 개발을 완료 못 했다면 과거 어느 시점보다도 그 완료에 근접한 시점이 아니냐 이 렇게 추정할 수 있고……

○송민순 위원 잠깐만요. 외교부차관님! 이 시 간이 아까 좀 해서 쭉 갔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을 수사적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핵 능력 평가에 대한 것은 지금 미국 이, 오늘도 클린턴 국무장관이 어저께 오면서 이 야기하기를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게 이츠 장관이나 미국 내의 여러 정부 당국자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굉장히 단정적으로, 우리가 영 어로 이야기하면 디퍼니티블리 스테이트(definitively state)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일반 사 람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말을 이렇게 넘어갈 사 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제가 아까 말씀드 린 캐치 올 프레이즈(catch all phrase)에 따라서 넣는 표현하고 그렇게 디퍼니티블리,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천명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전문가로서 잘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건 됐고요. 그런 점을 분명히 알고, 지금 이 게 오늘내일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 회에 이야기를 하고……

외교부차관께서 아까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야 기를 못했는데 지금 한미 간에, 오는 중에 차중 에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한미 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 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다 스테이먼트(statement) 가 다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북한 내부에 대한 평가, 지금 얘기한 핵 무기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데 정부는 매번 한미 공조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 는 식으로 굉장히 단순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좋습니다. 한미 공조는 당연히 잘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나오는 것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혼선을 주고 있 다…… 제가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야기한 데 대 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지만 한미 공조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고 있지 않 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되는지 간 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委員長 李龍三 잠깐만요. 송 위원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홍정욱 위원 한번 하고 하시면 어떻겠어요?
- ○송민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 ○송영선 위원 하기 전에……
- ○**委員長 李龍三** 잠깐만요. 그 말씀도 내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홍정욱 위원이 지금 급한 사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욱 위원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홍정욱 위원입니다.

제가 송민순 위원님 질의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외통부차관님께 우선…… 여기 계신 분 다 알 고 계시겠지만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5개 국이지요?

-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 ○**홍정욱 위원** 어디 어디지요? 확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미국과 러시아, 중 국, 러시아, 프랑스 이 다섯 나라입니다.
- ○홍정욱 위원 영국, 그렇지요?
-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영국.
- ○홍정욱 위원 영·불·미·중·러 이렇게 5개 국인데…… 그러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뭡니까?
-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그러니까 그 나라 들은 국제 규범상 핵보유국가로서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지요.
- ○홍정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국제사회는 암 묵적으로 그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 정하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핵보유를 용인받은 나라가 핵을 포 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지금 남아공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남아공이 핵무기를 개발했지 만 소수 백인 정부에서부터 흑인 정부로 넘어가면서 자발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 ○홍정욱 위원 남아공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지요, 암묵적으로?
-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그렇지요.
- ○홍정욱 위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표도 핵확산 방지가 아니라 핵의완전 폐기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러나 어디까지가 법적인 차원이고 어디까지가 레토릭(rhetoric)이고 어디까지가 현실론인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역시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암묵적인 핵보유국으로용인할 것이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지금 포커스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고개를 끄덕임) ○홍정욱 위원 NIC에서도 나왔고 JFC에서도 나왔고, 이것들이 다 미국 국가기관들이고 리언 파네타 · 데리스 블레어 · · · · 우리가 개인적인 의 견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물과 기관들의 입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실질적으로 용인하는 발언들이 나왔 고…… 또 방한 중인 힐러리 클린턴 장관도 바로 이틀 전인가요, 17일이지요, 일본에서 오자와 이 치로 대표하고 면담을 하면서 분명히 '북핵을 모 두 없애는 것은 힘들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 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국내에서, 우리 의원들뿐 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에서도 많 은 싱크 탱크들과 미 의회 의원들이 이를 기정사 실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고, 유독 우리 국회에서는 전혀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어 떤 이런 원칙론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서 저희가 참 많이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우선 아까 암묵적 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인정되고 있는 몇 나라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볼 때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과 또 다른 경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와 핵 폐기 협상을 하자 이렇게 국제사 회에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나 라들은 처음부터 NPT 체제에 들어가지를 않았 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NPT 체제에 들어 가 가지고 그 속에 있으면서 핵개발을 추진해 왔 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기만했다 이런 비난을 받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스스로 지금 6자회담이라는 비핵화 협상에 응하고 있는 거 아 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에는 좀 구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Ġ.

○홍정욱 위원 그 구분이 대단히 테크니컬 (technical)한 구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의 전제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공조,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공 조 그리고 그 차원을 넘어선 한미 간의 철저한 공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송민순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의심할 수 있는 각종 징후 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 로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슈 자체가 저는 북핵 현

실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무 슨 용어를 쓰건 레토릭으로 어떤 표현을 하건 결 국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 외교 · 안보 정책뿐만 아 니라 한미 동맹의 틀까지 기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물론 국가적으로 민감 한 사안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가 공유해 야 되는 정보도 있고 또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도 있고 한미 공조의 불안한 모습들도 떨쳐 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대단히 큰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회에 나오실 때마다 매번 많 은 위원들이 수많은 물증과 의혹을 가지고 질의 를 드리는데 항상 똑같은 답변만 주시지 마시고 좀더 북핵 현실론에 입각한 답변들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한미 공조 강조하 셨는데요, 지금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 정부와 한미 공조를 위한 협의가 아주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단 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의의 강도는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공조에 관해서 오늘 클린턴 국무 장관도 직접 본인이 우리 한미 간에는 긴밀히 공 조를 하겠다, 한미 간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홍정욱 위원 차관님, 알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읽으니까 그 내용은 다 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미 공조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미국 이 정하는 정책을 우리나라에 통보해 주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미 공조라고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그렇지요.

○홍정욱 위원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 이익에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고 또 변화를 요 청할 수 있는 공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장 방 문 중인 힐러리 국무장관의 부군 되시는 빌 클린 턴 대통령 당시에도 철저한 한미 공조를 강조했 지만 어찌되었건 정권 말기에 분명히 북ㆍ미 직 접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미국이 국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레토릭을 믿고 지금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어제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동북

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 사 동향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안의 의제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대한 가이드 인 프린서플(guide in principle) 이 것을 논의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기술적인 사안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준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란이 없었고, 다만 우리 측 실무 수석대표가 발언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의제가 정해져 있는 실무회담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한의대남 무력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제적인공조 또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게 무력도발의 무모함을 알리는 그런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6개국이 다 모인 이번 자리가 아주중요한 기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그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모종의 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말씀하시기 민감하겠지만 물밑 대화라 도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오전 회의 때 유사한 질문을 하신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때 제가 물밑으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 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면 국방부장관께 계속 미사 일 발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력도발이 일어난다면 서해안 상의 교전 혹은 서해안 상의 무력, 미사일 도발이 중요한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홍정욱 위원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답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서해안 지역에서 도발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저희 군은 서해안뿐 아니라 지상・공중・해상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소위 도발을 할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대비를 하고 또 구체적인도발 양상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개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또아시다시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지금 준비를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정욱 위원 잘 아시다시피 99년 연평해전 때는 북한 경비정과의 교전이었고 그때는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진압했는데요. 문제는 과거와 다른 행태로 도발을 해 올 경우가되겠지요. 예를 들어 서해안에 장사정포가 집중배치되면서 우리 함선 등을 향한 사격, 미사일발사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텐데, 북측의발포지점이 NLL 북쪽일 경우에는 우리의 대응이애매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상황에서, NLL 이북지역에 있는 상황에서 도발이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간단한문제는 아닙니다만……

○국방부장관 이상희 군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군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유엔사·연합사 정전 시 교전규칙이 있고 또 합참의 작전예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전 시 교전규칙입니다. 따라서 그근본적인 대응지침을 만든 것은 우선 개인 및 부대의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적이 도발을 했을 때 거기에 비례한 그러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홍정욱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제가 예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북측이 NLL 북쪽의 경우에 장사정포 등으로 우리 함대, 우리 함선에 포격을 가해 올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타격지점을 분명히 대응을 할 것입니다.

○홍정욱 위원 미사일에 대해서는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정욱 위원 미사일 경로를 다른 곳으로 유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미사일 발사지 점을 포격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우선은 미사일 대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함정에서 적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이것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하물며, 그러면서 적 미사일은 분명히 우리 함정에 공격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미사일 발사지점은 분명히 공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홍정욱 위원 그럴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셨을 텐데 미사일 발사 지점에 대한 보복 공격 을 했을 때 이것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십니까, 높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보복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지 보복은 아 닙니다.

○홍정욱 위원 대응이지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대응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는 노력을 위하여 군은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 에 적이 도발한 만큼의 대응을 할 것입니다.

○**홍정욱 위원** 제가 미사일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국방력으로 모든 미사일을 다 유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도할 수 없는 미사일 공격도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유도라는 게 무슨 표현이 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디퓨전(diffusion)이 되겠지요.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각 함정들은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프(chaff)에 의하여 미사일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자체방어 사격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기본적인 그러한 방어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부소장 하 신 발언 기억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무슨……

○홍정욱 위원 북한의 25개 미사일 기지에서 쏜 미사일이 3~7분 내 남한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서울의 경우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1분이 안 돼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구형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해상용 요격미사일 SM-2로 구성된 우리 방공망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또 미군이배치 중인 신형 패트리어트 PAC-3의 경우에 우리 영토보다는 미군기지 방어용이라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타격시간 문제는 오히려 김 박사가 얘기한 것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해상 표적에 대한

적의 미사일 발사였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상에서의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인데……

○홍정욱 위원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적의 가장 가까운 진지로 부터 서울까지는 한 2분 30초, 그다음에 대개 부산까지 본다면 한 4분 30초 이 정도 시간이 걸릴수가 있는데 이 시간 내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아까 얘기하신 패트리어트를 통하여 이것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PAC-3가 미군기지 위주라는 표현이 부분적으로 옳기도 합니다마는 기지들이 대개대도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기지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주거지역을 함께,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들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어쨌든 책임연구원인 국방연구원의 부소장께서 우리 영토를 향한 미사일 도발 시에 우리 방공망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 것은 대단히 불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한 것같아서 아주 불안한데 지금 시간이 다 안 돼서,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핫라인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핫라인이 모두 끊겼습니까? 우리 군에도 북한과 연결되는 핫라인이 없습니까, 열려 있는 곳이?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군에서 갖고 있는 핫라인이라는 것은 남북 통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핫라인이 있었고, 이 두 군데인데 후자는 지금 단절이 되어 있고 전자는 부분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러니까 핫라인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핫라인을 아직도 보유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범 위 내에서……

○홍정욱 위원 범위 내에서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3월에 실시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우리 훈련의 연습기간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증 가했지요? 때마침 북의 반응도 아주 격렬할 때인데 그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이것과 아까 우리영토에 대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상희 키 리졸브 훈련의 기간 문제는, 과거에는 키 리졸브 훈련과 그다음에 가을에 실시하는 을지포커스렌즈, 지금은 UFG라고하는데 이 훈련이 봄·가을 있었던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훈련의 내용 면에 있어서 어느 훈련을 더 포함시키느냐 이것에 따라서 훈련기간은 융통성 있게 조정이 될 수 있고, 이번에는 2012년 전작권 전환 등등 해서 연습기간을 길게 잡은 그런 차이입니다.

○홍정욱 위원 그리고 우리 영토에 대한 미사일 도발 시 아까 우리 방공무기가 무용지물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방공무기가 무용지물이라고 한 표현은 분명히 과대한 표현이고 우리 방공무기가 충분하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민주당의 박선숙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전수칙 3단계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교전수칙 3단계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3단계?
- ○박선숙 위원 예.
- ○국방부장관 이상희 3단계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 ○**박선숙 위원** 교전수칙 3단계요. 3단계 교전수 칙이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3단계 교전수칙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박선숙 위원** 그러면 교전수칙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전수 칙은, 지·해·공에서의 정전 시 교전규칙은……
- ○**박선숙 위원** 아니,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수 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러니까 그 3단계가 무슨 3단계인지······
- ○박선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릴 게요.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장관께서 이런 질문 을 받으셨어요. '지금 경고통신으로부터 대응 단

계로 넘어가는 3단계를 현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NLL 지역에서의 교전규칙······

- ○박선숙 위원 예, NLL 지역에서……
- ○국방부장관 이상희 일반적인 교전규칙이 아니고요.

○박선숙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NLL에서의 교전수칙 3단계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경고통신, 그다음 에 경고사격. 격파사격……

○박선숙 위원 답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무력도발 의지를 확인한 다음에야 우리가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경고통신이라는 것은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합의에 의하여 NLL을 침범하면 국제상선망에 의해 넘지 말라는 경고이기 때문에 실제 군사적 대응하고 그렇게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니다'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속기록을 갖고지금 읽어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를 해석하면, '경고통신이라는 것을 생략하고 북 한이 NLL을 넘어올 경우에 도발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경고통신이라는 것은 NLL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통신입니다.
- ○**박선숙 위원**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따라서 NLL을 침범하는 것 자체, 그 자체는 분명한 도발입니다.
- ○박선숙 위원 그러니까 NLL을 넘어오기 전에 경고통신이 이루어지고……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박선숙 위원 NLL을 도발하는 순간 도발로 간주하다?
- ○**국방부장관 이상희** 도발로 간주합니다.
- ○박선숙 위원 상대방의 선제공격이 없더라도 NLL을 넘어오면 도발이다, 그래서 2단계 대응을 한다는 것이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도발이라는 것 자체가 그 것이 어떤 무기체계로 공격을 하는 도발도 있을 수 있고 넘은 사실 자체가 도발이기 때문에 저희 가 그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 다.
- ○박선숙 위원 적절한 대응은 어떤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를 들어서 북한이 NLL 을 침범했는데 우리 함정이 보기에 거기에서 NLL을 침범한 것이 적의 표류어선을 단속하거나 이렇게 해서 왔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NLL을 침 범해서 표류하는 선박을 예인하기 위한 도발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의 대응 작전을 할 때 적의 함정이 우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면 그것은 분명한 무력도발인 것입니다.

○**박선숙 위원** 앞의 말씀하고 조금, 또 다시 내 용이 달라지는데 NLL을 넘어오는 행위 자체가 NLL 교전수칙의 2단계 대응이 가능한 도발행위 이다, 그런데 그 행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제 해석입니다만—자기 측 선박의 예인을 위한 행위로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응하고 그런 유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넘어왔을 경 우에는 2단계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 면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상대방의 무력 도발 행위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았을 때에도, 없 을 때에도 NLL을 넘어오는 행위 자체를 무력도 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 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현장의 지휘관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적이 도발할 의사가 있는가, 도발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현장지휘관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개인 및 부대의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지휘관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 다.

○**박선숙 위원** 큰 방향에서 제가 방금 드렸던 질의의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NLL을 넘어오는 행위 자체를 도발로 간주하여 2단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교전수칙 2단계 적용의 방향을 주신 상태에서 현장지휘관의 재량의 범위에 대해 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제가 다시 질문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현 장지휘관의 재량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작전 권한을 현장지휘관에게 상당 부분 위임했다고 답 변을 하셨는데.....

○국방부장관 이상희 위임되어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지금 현재 위임받고 있는 지휘관 이 육군의 CP장 정도에 해당하는 함정지휘관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현장지휘관이라는 것은 그 작전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박선숙 위원 NLL에서의 현장지휘관이란 군 함으로 치면 함정지휘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받았 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함정의 지휘관일 수도 있 고 그다음에 함대사령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선숙 위원** 둘 다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 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래서 화기사용 권한이 위임되 어 있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따라서 함정지휘관에게 위 임된 부분이 있고 함대사령관에게 위임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합참의장이 하여야 할 부분이 있 고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자세한 내용은 이게 군 기밀에 해당돼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하시는 것입 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 니다.

앞의 질의하고 연관 지어서 북한의 선박이 NLL을 넘어올 경우 교전수칙 3단계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2단계 대응 에 포함되어 있는 화기사용의 권한이 함정사령관 에게 넘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일차적으로 적의 함정이

공격을 한다면 당연히 함정사령관에게 그 대응권 한이 있는 것입니다.

○**박선숙 위원** 다시 질의드리면 적의 물리적 공 격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 이 있고요. NLL을 넘어오는 행위를 도발로 간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NLL 을 북측 선박이 넘어왔을 경우 함정사령관이 화 기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함정의 함장이 적이 자기 에 대하여, 그게 개인 및 부대의 자위권이라는 것인데 적이 자기에 대하여 사격을 할 의도가 있 고 또 사격을 했다면 당연히 그 함정지휘관은 거 기에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선숙 위원 두 번째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 격을 할 의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함정사 령관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박선숙 위원** 의도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함정사령관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 ○박선숙 위원 의도를 확인하는 기준들이 명시 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세부적인 기준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박선숙 위원 행위 이전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방부장관님께서 오전·오후에 계속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NLL을 포함하여 여러 곳에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경우에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여 강력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여러 차례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충돌이 확전되거나 혹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전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비조치들이 되어 있 는가에 대한 것이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차 연평해전 아시잖아요. 2차 연평해전 때 적의 함정이 우리 함정에 대해서 지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선제사격을 하였습니다. 만일 그 선제사격하는 순간에 우리 함장이 적이 나한테 사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함장은 자기의 직분을 다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전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느냐, 근본적으로 군의 작전지침과 교전규칙의 기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제일이 억제입니다. 적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교전이 되면 그것을 그 교전에서 종료하고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시 교전규칙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그 정신만큼 위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격받으면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고 가장 단시간 내에 아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완전하게 상황을 진압하는 것이 군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관해서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장관께서 2차 서해교전 말씀을 하셨는

데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당시에 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2차 서해교전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북 함정의 NLL 침범 징후만 포착되더라도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 전력, 백령도·연평도에 위치한 지상군 전력이 합동으로 대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게 억제입니다.
- ○박선숙 위원 이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NLL 침범 징후란 북측 선박의 NLL을 넘어오는 행위 를 말합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박선숙 위원 그러면 NLL을 넘어오는 순간 공군·지상군 전력이 합동으로 무력시위에 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NLL을 적이 침범하면 도발입니다. 따라서 그 침범한 함정이 거기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합동전력으로 당연히 대비를 하고 그럼으로써 그함정이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박선숙 위원 제가 억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 도발행위 자체를 공격으로 간주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행위가 우리 쪽에서 선제공격의 행위로서 혹은 과잉행위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적의 어떤 유인에도 걸려들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과잉대응을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교전규칙에 그러한 정신에 따라서 위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말씀드립니다.
- ○박선숙 위원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작전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의 효용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해석의 여지가 과도하게 있는 작전권한의 위임이란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오판의 가능성을 우리 내부에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군 기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장관님께서는 있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이 높은 충돌 예상 지역에서의 지휘관들을 적어 도 한 번씩은 다 모아 놓고 개개인들의 판단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 직접 하시든 차관이 하시든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러한 교육과 또 대비태 세에 대한 점검은 저희 합참에서도 최근에 다 실 시를 하였습니다.

○**박선숙 위원** 장관께서 직접 한번 만나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가급적이면 군사지 휘관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박선숙 위원** 워낙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평 소의 계통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더 이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히 한미 군 사합동훈련이 치러지는 올 3월부터 꽃게잡이가 시작되는 6월까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대 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미리 해 놓으십 시오.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지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열립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박선숙 위원** 통일부장관도 참석하시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군의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회의에 5 년 만에 처음 대통령으로서 참석을 하셨는데 전 체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노력과 함 께 지금 남북 간에 단절되어 있는 핫라인을 어떻 게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저보고 질의하신 것입니 까?

○박선숙 위원 국방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 다 질의드렸어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국방 관련해서의 핫라인이 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준이 현재 남북 간에는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되어 있는 상 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위층에서의 어떤 핫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남북 간의 합의 에 의하여 서해지역에서의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핫라인이 함대사 간에 있었으나 그것이 지금 단 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또 남북 통행을 보장 하기 위하여 양쪽……

○박선숙 위원 예, 제가 그 앞에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추후에 송영선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면 제가 뒤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 ○**송영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 습니다.
- ○委員長 李龍三 의사진행발언 하실래요?
- ○송영선 위원 장관의 답변 스타일에 대해서 얘 기를 하고 싶습니다.
- ○委員長 李龍三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송영선 위원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외통부에도…… 점심시간에 위 원장님께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 오셨어요. 그런데 외통부에는 과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도 대체 남북특위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또한 지금 답변하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불 만스럽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예스맨이 아닙니다. 긴 급한 상황이니 조심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입 다물고 모르쇠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특 히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미국이 주장하는 이유, 미국의 국 무부와 국방부가 다른 이유, 한국이 다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북한은 NPT 탈퇴했으니까 자기들은 핵을 가 져도 누가 간섭 못하고 미국은 NPT 체제를 연 장 유지해야 되는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명분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인정하면 북쪽에서 비대칭적 군비통제 요구하니까 그것에 휘말려들 것 같기 때문에 문제를 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떻게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가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다'…… 그러면 유명환 장관님은 작년 10월 국정 감사에서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핵탄두가 6개, 7 개 있다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외교통상부 말장난입니까? '미사일 에 실리지 않으면 무기라 할 수 없다'…… 아니,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미사일에 처음 실어 가지고 실험했어요? 다 지하실험이에요. 비키니아일랜드 가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국방부장관님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이게 도 대체?

교전규칙 비밀 아닙니까? 교전규칙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개념 자체는 비밀이 아닙니다.

○송영선 위원 개념 자체는 비밀이 아니라도 지금 디테일하게 언제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국방부의 특성은 군은 사회질서하고 다릅니다. 평상시가 아니고 비상시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전규칙은 이렇게 했지만그것은 사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2단계에서 어떻게까지 간다,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자기가 대답하기 어려우면 비밀이라고 그러고 대답하는 데 부담 안 느끼면 비밀이 아니 라고 하고 이런 이현령비현령 식의 답이 어디 있 습니까?

○委員長 李龍三 이제 그만하시고 나중에 또 하시고요.

○**송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치우겠습니다.

군 지휘관에게, 답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박선숙 위원님이 군 지휘관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라…… 국방부가 자존심도 없습니까? 지휘관한테는 그 자리를 지휘할 권한을 절대적으로 양도하기 때문에 지휘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군을 믿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십시오. 지금 국민들도 다 봅니다. 이것을 보고 얼마나불안하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다음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현인택 통일부장관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울 때 맡으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한 1년여 힘겨루기, 탐색 이 가운데 학계에서 오 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논평이나 조언하 실 때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오셔 가지고 할 때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그러니까 11월 말~12월 초에 걸쳐서 제가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10여 차례 회담하면서 사람도 많이 알고 했는데 확실하게 달라진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때 나오신 분들 얼굴을 보면 옛날에 알던 사람은 거의 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 그 체제에 굉장히 충성하셨던 분들, 곧이곧대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분들은 살아남아 계시고 굉장히 유화적이고 이해를 하면서 했던 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남아 계시는 분들은 강경한입장, 곧이곧대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 외에는 전부다 젊은 분으로 확 바뀌셨는데 가면 안내하면서 하는 분이……

○委員長 李龍三 김광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국방부장관님께서 아래에서 선진당 총재 님하고 미팅 시간이 있어서 잠깐 이석을 했다 오 시겠습니다.

차관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계속하세요.

○김광림 위원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수행하면서 감시하는 분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이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상당히 말조심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는 얘기를 했고, 그 후에 잇달아서국방부 대변인의 아주 엄한 발표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힘든 현 장관님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절 대로 확 바뀌셔 가지고 새로운 이명박 정부의 정 책으로, 평소에 조언하셨던 대로 확 바꾸겠다 하 는 생각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야구로 말씀드리면 기존 타율이 2할5푼 정도 되면 현 장관님 오셔 가지고 한 3할대로 올리면 굉장히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칫 오는 공마다 전부 쳐서 100% 타율을 올리려다 보면 7회말쯤 갔는데 타율이 1할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참고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다른 장관님들은 국민들 보고, 청와대 눈치도 좀 봅니다마는 국민들 보고 일을 하면 되는데 장관님께서는 국민들 입장도 생각하고 북한 쪽, 특히 북한 당국의 입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는 어떻게 보면 남쪽에서 국민들 얘기 들을 때는 많이 들으시되 항시 생각하실 때는 북의 입장에서 회담장에 앉아 계신다 하는 입장에서, 특히 말씀으로 단어적으로 표현될 때는 굉장히 유연한 단어로 표현하

셔야 빨리 남북관계가 제대로 될 것이다 하는 말 씀, 물론 잘하시겠지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자료를 보면 작년도 11월 12일 날 중앙일보 기자 분 팀들하고의 이야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광림 위원 혹시 통일부 관계자 뒤에 계시는 분들 확인
- ○통일부통일정책국장 김천식 예.
-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를 한 중에 그중의 한 대목입니다. 마치 이게 굉장한 기본정 책-일 수도 있겠지만-인양 이렇게 얘기하셨는 데 사실은 북측에 보내는 메시지는 굉장히 유연 하고 어떻게 보면 전 정부의 울타리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은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자료에 보면 '북한의 태 도 변화가 없는 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다리는 것도 전략 이다 하고 그 후에 북한 가시는 분들한테 메시지 전달시키고 한 것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대목에 와서는 굉장히 강한 듯한 표현이신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요? 사실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도 상당 히 현재 북쪽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유화적이었습 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언 어의 뉘앙스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 의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또 대 화를 적극적으로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태도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촉구하 고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제의해 놓은 상 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김광림 위원 그리고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정세현 장관님 존함을 거론하시면서 위원회 구성 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 ○김광림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내에 비치는 특 정인의 이미지는 국내하고 협상장에 가면 전혀 다릅니다. 제가 보면 통일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통일부장관님이 친북이다 이런 것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랄까 지나친 보수다, 이렇게 현장 에서는 굉장히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정식 멤버는 아니더라도 전

직 장관님들, 오래 내공이 쌓이신 분들 한번 만 나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마는. 그리고 회담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 물론 지금 김천식 국장도 계시지만 그 전 전에 계셨던 굉장한 전문가들이 어떤 이유로 지금 전부 그만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도 자주 만나 주시고 Ġ

그다음에 제가 경제부처 출신입니다마는 알게 모르게 경제부처하고 통일부하고는 으스스한 선 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장관 님께서 경제부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자주 만나 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외교부차관님도 한 말 씀 해 주십시오.

클린턴 힐러리 국무장관이 여기에 오시면서, 언론에 보면 후계자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후계자 발언을 하셨는데, 언론 논조는 '북쪽이 좀 어수선하게 하는 듯한 그런 목적이 있는 듯' 그 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지, 외교부 권 차 관님께서는 혹시 국무장관이나 외교 관례적으로 이렇게 오실 때 특정한 멘트에 대해서 사전 협의 를 하시는지 아니면 차관님께서도 신문 보고 아 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 장관님부터.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 문제는 오늘도 한미 외 교 장관 회담을 오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외교부차 관이 나오셨으니까 저보다는 좀더 권위 있는 답 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이번 보도된 클린 턴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특정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우리 외교안보수석이 방미하셔 가 지고 미국 신정부의 요인들을 죽 만나 가지고 북 한 핵 문제라든가 대북정책에 대한 예비적인 또 는 초보적인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인도네시아에서 서울로 오는 기내에서 기 자들과 회견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앞으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느냐?' 하는 질 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 그 언급이 그 사안만 딱 떼어 가지고 톱(top)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마치 미국이 '현

재 북한 권력승계 과정에 무슨 큰 혼란과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쪽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미 측 수행원들하고 이야 기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가상적인 질문이 나 온 가운데 대답한 거고, 또 저도 조금 전에 클린 턴 국무장관의 총리 예방에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밑의 사람들부터 제가 기자회견의 트랜스크 립트(transcript)를 봤습니다.

봤더니, 정확하게 보면 '만약에 북한에서 승계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그 승계가 평화적인 승계 로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승계라는 것은 어느 정 도 불투명성, 언설턴티(uncertainty)가 있다'그렇 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보도에서 즉각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 그 감과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광림 위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북했던 11월 말, 12월 초가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땐데, 그쪽 실무자들 얘기가 그럽니다. '우리가 옛날 오래전부터 남의 집 내부에 아픈 부분, 이런 건 서로덮어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아주 간곡하게 이쪽으로 부탁을 했는데요.

사실은 미국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몰라도 혹시 앞으로 통일부나 그런 것 할 때 상대방의 개인적인 집안 내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께서, 혹시 안 되면 뒤에 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통일부 예산 중에서 여야의 이견 없이 했던 예산이 뭐냐 하면 개성공단의 기숙사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 남쪽의 한 100개 가까운 기업이 기업수가 늘어나면서 젊은 분들, 여성분들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개성 시내에 동창리라는 곳에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북한 전역에서 전부 다 손놀림도 빠르고 한 젊은 근로자들을 모셔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지금 닫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은 없는 걸로 제가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림 위원 우리가 진전 안 시키는 겁니까,

북쪽이 반응이 없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현재로서는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김광림 위원 아니, 진전이 안 되는데 그 원인 이 저쪽에서 하여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까? 돈도 필요 없고 기계도 다 필요 없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진을 안 하는지?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남북 간의 대화가 선행되어야 되겠는데 아직 그 대화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아시면 될 겁니다.

○김광림 위원 돈도 남북협력기금에서 230억 가 깝게 들어가 있는데요.

한 말씀 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때 분위기는 관 쪽은 닫혀 있지만 민은 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민봉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민 쪽에서 하는 것은 가급적 많이 보내시고 해서 좀 끈을, 공식 핫라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쪽에서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쪽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 ○김광림 위원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龍三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범관 위원** 외통부는 차관님이 나오셨지요?
-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그렇습니다.
- ○이범관 위원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북한의 태도를 여러 위원님들도 죽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고,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것 참 핵 보유를 인정한 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참 '말은 못 해도 알 것 아닙니까?' 이런 심정 아 니겠어요, 지금? 그러시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래서 사실 남북 관계라는 것이 핵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관련이 된 일이기 때문에 참 딱 부러지게,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는 정부의 입장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의 갈등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이용당하지 않고 슬기롭게, 정말로 남 북 관계의 평화적 정착을 원한다면 이것은 정말 여야를 떠나서 국익을 위해서 슬기롭게 대응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정부와의 질문과 답변도 이루어지고 대화도 이루어지면서 정말 어떻게 대 처를 해야 될 것이냐, 머리를 싸매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오 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내가 좀 바라는 겁니다. 답답해요. 답변하는 것 보면.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대립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피하느 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목소리 가 커지고 따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머 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좀 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외통위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데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사실 지금 헷갈리는 것이, 우선 미국도 헷갈립 니다. 미국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일부에 서는 보이는 발언이 나오고, 보도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절대 비핵화다', 그러니까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 미국이 비확산인지, 비핵화인지 혯 갈리게 최근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 면이 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 기가 나옵니다마는 미국의 행정부가 우리 대한민 국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명확하게 했습니 다. 그리고 오늘 클린턴 국무장관도 명확하게 했 습니다.

○이범관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면이 있 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어떻 게 되는 거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뭐냐?' 자꾸 따져 묻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확실하게 클린턴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오늘 회담이 끝난 다음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북핵 불용의 원칙에 따라 6자 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추진한다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 이견이 없다' 했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이범관 위원** 이게 확실합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또 의문이 나서 자꾸 묻게 되어 있다고요, 또. 미국도 이런 소리를 했다가 또 어 디 나가면,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지금 국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만천하에, 전 세계에 천명한 내용이 기 때문에 믿어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범관 위원** 그래서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의 구심이라든가 좀 어려웠던 문제를 클린턴 장관이 이번에 와서 한미관계의 공고한 동맹관계를 확실 하게 짚어 줬다, 이런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범관 위원** 또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 만 미국도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언론이 나오고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한 미관계의 완전한 대화, 진정한 대화 이런 것이 우리가 제일 급선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 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 다.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핵 문제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비확산 정책입니까, 비핵화 정책입 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비핵화 정책입니 다. 동시에 또 확산도 막아야지요.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가 되어야 지 만약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확산의 유혹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확산과 동시 에 비핵화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클린턴 장관이 방한을 하면서 북한의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후 계자 문제, 후계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앞으로 북 · 미관계가, 지금 국내에서 걱정하는 건 뭡니까? 통미봉남이라고 해 가지고 북ㆍ미 간에 다 이루어지고 우리 남쪽 은 허수아비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지 않 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거꾸로 오바마 행정부가 부

시 행정부보다도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북·미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원칙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리뷰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때문에 아직은 그 판단을 하기에는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범관 위원 지금 형편으로는 뭐 그렇게밖에 대답 못 하시겠지만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동안의 단계를 보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통미봉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대북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가진 정치권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통미봉남이 돼 가지고 허수아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우려할 문제예요. 우리 남북의 문제를 우리가 모르고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오바마 행정부의 북미관계 접촉을 우리가 상당히 염려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클린턴 장관이 와서 북핵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그 문제는 저도답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외교부차관께서 답변드리시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외교부에서 답변해 보십 시오.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지금 존경하는 이 범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핵화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 더 이 문제와 관련해 서 우리가 주목할 발언은, 남북한 간에 대화가 없으면 미・북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

○이범관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완전한 검증과 폐기를 통한 비핵화를 확실하게 클린턴 장관이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저희는 북한이 그 것을 받아들이도록 국제사회, 특히 6자 회담 테 두리 내에서 다른 국가들과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북한에도 그것이 자기들 국가 이익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 것은 우리 바람이고 북한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쉽지는 않겠지만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지요.

○이범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북·미 대화는 없다는 취지의 클린턴 장관의 언급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이범관 위원 이것도 북한으로서는 참 받아들 이기가 어려운 일이지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 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과거 행태를 보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통미봉남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더 자신을 가지고 너무 지나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관계가 50년 동안 이렇게 심도 있게 발전됐는데 제가 볼 때는 북・미간의 관계가 이렇다 하게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범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국이 이번 클린턴 장관 방한을 통해서 확실히 천명한 비핵화 또 남북대화 촉구 이런 것은 다북한이 받아주어서 잘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우리는 염원하지만 북한이 이것을 안 받아줄 때는 미국의 태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저는 전망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도…… 과거의 민주당 정부 때 몇 가지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94년도의 핵 사태 때도 무력사용을 고려한 적도 있고 또 그 이외에 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오바마 정부도 그 정부란 말이에 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클린턴 장관이 방한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는 것은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껄끄럽게 되는 시초가아니냐, 이런 데에서 볼 때는 오히려 북·미 관계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남북 관계가, 우리 남북끼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면 얼마나 좋아 요. 우리가 왜 6자회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남북 간에 하지. 그러니까 남북대화 왜 안 하느 냐고 하는 분들도 저는 답답한 것이 해서 우리끼 리 해결될 것 같으면 왜 안 하겠어요? 6자회담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의 중요한 한 축인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되면 껄끄러운 관 계가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애 걸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가 됐을 경우 에. 그렇다면 더욱더 어려운 남북 관계의 경색이 더 오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동감이고요 남 북 관계가 잘 되어야지 또 북 · 미 관계가 잘 될 수가 있고 또 북ㆍ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제일 이상적이고 지금 위원님 말 씀대로 북한이 우리를 기피하고 있지만 계속 우 리 정부 내에서는 대화를 제의하고 또 대화로 설 득하는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도 북한이 대화를 단절한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설득으로 대화의 장에 나왔 습니다.

○**이범관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 · 미 관계가 잘 돼야 합 니다. 대화가 잘 되게끔 우리 정부가 협조를 해 주고 지원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또 미국과 우리의 한미 관계의 대화가 병행해서 잘 돼야 됩 니다. 그래서 3자 대화가 한꺼번에는 못 되더라 도 미국을 가운데에 놓고 북한하고 대화가 잘 되 도록 우리 정부가 협조해 주고 또 우리가 미국 정부하고 대화가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 가 해결이 되면 아무리 여기에서 남북 대화를 하 기 싫어도 할 때가 오지 않느냐, 그것이 궁극적 으로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미국 빼놓고 우리끼리 하면 얼 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미・북 관계 정상 화 안 되면 저는 북한이 대화 안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한미 관계에 대한 진정한 대화와 또 우리가 북한을 걱정하는 것을 미국이 확실히 알게끔 하는 그러한 의사 전 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어 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이번에 대통령과의 대화, 오찬 또 국무총리와의 면담, 외 무장관 회담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범관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제가 우려하는 바를 정부 측에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알겠습니다.
- ○**이범관 위원** 다음에 국방부차관 나오셨나요? ○委員長 李龍三 차관이 법사위원회에 있어서 정책조정관이 대신 나와 있습니다.
- ○**이범관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각 언론이 보도한 바에 보면 남한과 물리 적 충돌은 시간 문제다,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아시지요?

- ○국방부정책기획관 권오성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범관 위원**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남북 관계 충돌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도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남북 관계의 무력적 충돌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 ○국방부정책기획관 권오성 군은 기본적으로 최 악의 상황을 늘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 떤 북한의 전체적인 수사적 위협이든 군사적 행 동에 의한 도발이든 이런 위협이 다른 때에 비해 서 비교적 높다라고 현재 저희들은 인식하고 그 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범관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이지요. 우 리가 먼저 도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이고.
- ○국방부정책기획관 권오성 저희들은 헌법에 기 초해서 평화를……
- ○**이범관 위원** 북한의 도발이 있어 가지고 대응 을 할 때 밀고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선 까지 밀어붙일 것입니까, 방어적으로 대응만 하 고 끝날 것입니까? 기본원칙이 뭡니까? 예를 들 어서 NLL을 침범해서 내려왔다…… 내려온 선에 서 대응해서 스스로 올라가게 만들 거요, NLL선 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무력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할 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 ○국방부정책기획관 권오성 저희들은 위원님께 서 알고 계시다시피 헌법에 기초해서 평화를 사 랑하는 것이 저희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선 제해서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고요……
- ○**이범관 위원** 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이고.....

○국방부정책기획관 권오성 그래서 적이 도발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기 보고드린 대로 정전 시 교전규칙에 의거해서 확고하게 대응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범관 위원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말은 지금 못하지만 막상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을 안정시킬 최대의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잘못됐을 때는 확실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국방부정책기획관 권오성 예.
- ○이범관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위원입니다.

외교부차관, 아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야기한 김정일 중병설 그리고 후계 구도와 관 련된 부분이 너무 문맥을, 앞뒤를 잘라서 하다 보니까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언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공식 적으로 논평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김창수 위원 고든 두기드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말 의미그대로 두고 싶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무부의입장을 대변한 것이다'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북한 후계체제의 어떤 변화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북한의 여러 가지 위기,이런 부분을 언급을 한 것이 그냥 돌출발언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6자회담의 어떤 전략적대안 이런 것까지 연계시켜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무부 대변인이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국 무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클 린턴 국무장관이 했다는 발언이 뭐냐? 동아일보 에 보도된 발언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실제로 발 언한 내용이냐 이건데요.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트랜스크립트 (transcript)를 읽어본 내용을 소개해 말씀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북한에서 후계 과정이 개시된다면 그런 과정이 평화

적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불확실성의 요소는 있을 것으로 본다'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발언, 트랜스크립트에 나온 내용 대로이고 그 입장을 국무부가 인도스(endorse)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 격으로 서로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감이 있는데 분명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이 작년에돌아다닐 때 우리 정보책임자들은 '양치질은 혼자서 하는 수준이다, 옆에서 조금 부축하면 된다'이런 식으로 마치 옆에서 바라보듯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정도로 상당히 북한의 최고 지도부에 대한 어떤 정보를 면밀히 하는 것처럼 했지만그때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거의 노코멘트 식으로했는데 그렇게 신중하던 미국이, 그것도 국무부장관이 이런 후계체제의 변화 가능성 또 그의 어떤 대응 이런 것을 언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고도의 그런 내밀한 정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제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적인 질의에 대해서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언급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 외부에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삼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평가를 종합해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체제 내에서 정책결정에 어떤 이상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평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 간에 충분한 정보와 여러 가지 첩보 를 공유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분석 평가하는지, 그런 공동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하는 부분 이 저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던진 겁니다.

지금 어찌됐든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상당히 적극적인 그리고 신속한 그리고 또 기존의 어떤 체제를 좀 변화시키려는 이런 정 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스워스를 대북 특사로 임명을 할 예정이지 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임명했다는 사실

을 공표를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공식 발표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정도로 대북 문제에 대해서 특사를 임명하고 또 파견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또 북한 인권 문제나 경제 지원 문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기다리는,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지만 마냥 무책이 상책이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다 결국은 한반도의 당사자로서의 어떤 지위 내지는 역할이 상실되고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에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이 다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 위험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우리의 대북 정책, 기다리는 것이 우리 정책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 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통일부장관님이 계시 니까 하시고요.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다만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미국 행정부가 취임한 지 약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국무부장관이 몇십 년 만에 최초로 취임 직후 첫째 해외 방문지로 아시아를 선택하고 그중에 한국을 방문했다는 점 또 취임 직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내에 특사를 임명했다는 것, 이것이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특사 임명하듯이 그만큼 대북 정책을 앞으로 아주 고위직에 맡겨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겠다는 이런 사인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까 기다리는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사실은 올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저희들의 하나의 수동적인 정책이라든가 또는 좀 강경한 정책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 간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난 7월 금강산 총격 이후에 남북 관계가계속 나빠져 왔고 지금 아주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 제의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 국면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좀 과문한 탓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부의 그런 적극적인 어떤 해결 의지나 노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지금 안 계신가요?

앞서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북측이 계속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앙통신이라든지 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이야기라든지 북남의 어떤 물리적 충돌, 말하자면 '전쟁은 시간 문제다'이런 식으로까지 저쪽에서 아주극언을 퍼붓고 있는데 'NLL도 인정을 못하겠다'이런 식으로 나가서 '제2, 제3의 서해교전이라든지 심지어 6・25 같은 전쟁도 재발할 수 있다'이런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태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국방부정책기획관 권오성 위원님 말씀하신······

○김창수 위원 조정관이신가?

○국방부정책기획관 권오성 예, 국방부 정책기 획관입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국방부정책기획관 권오성 느끼고 계신 것은 저희들도 또 국민의 하나이고 하기 때문에 동일 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 늘 대비하는 것이 저희들 군 고유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아주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뻔한 답변을 제가 기대하지는 않 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반도에 이런 어떤 전운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가 있고 6자회담이나 그밖에 남북 군사고위급 회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협상들이 제대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현대 측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그런 전제 아래 예약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통일부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금강산 관광을 이런 분위기에서 재개를 할 경우에 또 다시 관광객이 사고로부터 노출될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까? 어떤과정을 거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게 됐나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먼저 현대의 광고 문제는저희 정부와 일체 사전에 상의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런 광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김창수 위원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대아산 측에서는 금강산 사업 같은 것은 정부는 제쳐 두고 그냥 북쪽하고 다이렉트로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강산 총격사건이 있었기 때 문에 저희 정부는 앞으로 금강산 사건과 같은 그 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것을 북쪽보다……

○**김창수 위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정부 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에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하고 신변안전 보장이 두 가지 조치가 제대로 돼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통일부장관 말씀은 그러한 안전과 재발방지 이런 확실한 약속을 담보 받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해서 승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말하자면 북한으로부터 그 런 재발 방지 및 신변안전 보장조치에 대한 어떤 확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금강산 총격사건이 일어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됐는데도 이 부분 에 대해서 북한 측이 사과 한마디, 유감 표명 한 마디도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그런 약속을 받아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북한과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허허, 그것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현재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그런 것이 관광객 박왕자 씨가 총격을 받아서 사망하게 된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매듭이 아직도 안 풀리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 암운이 감돌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정부 당국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표명 그리고 북측으로부터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아직까지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며 또 현대아산 측은 그런 가운데서도 4월 달부터…… 4월 달이 멉니까? 다음다음 달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

다고 해 가지고 50% 할인 예약 판매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는 말로만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김창수 위원 현대아산이 관광객 수입을 다시 거둬들이는 그런 상업적인 것으로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일언반구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로서는 하여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김창수 위원 국민은 아직도 그 사건의 책임자와 그리고 그 책임에 관련된 공식적이고 반드시어떤 재발을 막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박왕자 씨가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가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느냐 그리고 남북 관계가 과연제대로 정상화될 것인지 이것을 판가름하는 그런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龍三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길 위원 통일부장관!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 ○권영길 위원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의 제1 과제가 뭡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국정과제······ 어떤 말씀이 신지······
- **○권영길 위원** 제1의 국정과제가 뭐냐고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경제 살리기가 아마 이명 박 정부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 다.
- ○권영길 위원 그렇지요? 경제 살리기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끊임없이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바라는 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살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겠 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외자 유치를 더 늘려야 된 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신인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권영길 위원 만약에 남북 간에 무력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던 외자 빠져 나가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권영길 위원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럴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일어난다면 저희……

○권영길 위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 살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의 긴장국면 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측에서는 무력 충돌하고 있다고 연일 대남성명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 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몇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 금 이 상황이 위기의 상황에 가깝다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위기에 가깝다?

군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북 간의 핫라인이 완전히 단절돼 있지요?

○권영길 위원 과거 정부에서 구축되었던 핫라 인이 작동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그와 같은 대화는 단절돼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완전히 핫라인 단절돼 있고, 비 공식 대화도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권영길 위원 아니, 적절한 게 아니라 비공식 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언제든지……

그러려면 왜 나오셨어요? 그 정도 답을 안 하시려면 무엇 때문에 나오신 거지요? 과거에 있어서 이 정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이상의 답변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셔야지요.

공식 · 비공식 대화가 일체 없는 거잖아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공식적인 대화는 지금 단절돼 있다……

○권영길 위원 비공식적인 것도 없는 겁니다.

비공식적인 대화가 있다고 하면 북측에서 무력 충돌까지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지요.

자, 주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권영길 위원 아니, 복합적인데 가장…… 북측에서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대적 성명을 발표하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장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명박 대통 령의 후보 시절부터 통일정책을 입안하시는 주요 인사 중에 한 분이었다 그러고 또 인사청문회도 거쳤고 그랬으면 그것은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닙 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내 부적 요인도 있고 외부적 요인도 있고 해서 복합 적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권영길 위원 복합적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의 성명이나 말을 빌리면 그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것을 자기들은 빌미로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 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파 악을 안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제 가······

○권영길 위원 그러면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제일 처음 시발점이 6·15공동선언하고 10·4선언을 안 받아들인 데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어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기존의 모든합의와 더불어 6·15공동선언, 10·4선언 합의를 존중하고 그 이행절차를 북한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권영길 위원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다 나왔거 든요. '존중'이었고 '이행'이었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는 제일 처음에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이행할 의지가 있다'이렇게 됐었는데 북측에서는 존중하라고 그렇게, '존중'이라는 용어를 이때까지 안 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썼고 아마 우리 통일부 현 장관께서 부임하시면서 그 용어를쓰는 것으로 됐는데 존중과 이행에 있어서의 대립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
- ○권영길 위원 그런 거지요?

그 두 문제의 차이점이라는 것도 잘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 ○권영길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이렇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한다면 저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가장 좋기는, 대통령께서 천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만약에 남북 간 에 이렇게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경제 살 리는 게, 이것은 정말 수습할 수 없는 국면에 들 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정부의 공식으로 입장으로 나와서, 대통령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존중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제가 정부의 한 부처를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를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통일부장관의 '존중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으로…… 통일부장관께서는 우리 통일정책을 주관하는 주무 장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 ○권영길 위원 통일부장관이 6·15, 10·4선언 존중하겠다 그런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못 할 이 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명확하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영길 위원** 6 · 15공동선언, 10 · 4공동선언 존중하겠다?
-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중하고 그 이행에 관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공식으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 ○권영길 위원 7·4선언, 남북기본합의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6·15공동선언, 10·4선언하고 그 이전의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의 차이가 뭘까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정치적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권영길 위원 정치적 선언이지만 차이가…… 7 ・4선언은 사인한 서명자가 누구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7·4공동성명은 물론 정상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도 정상이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 ○권영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용보다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것이 6·15공동선 언과 10·4선언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양측 총리가 했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했지만 그것이 국가 정상이 나 중에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물론 확인했지요. 그런데 양측 정상이 한 것도 이렇게, 지금은 존중이라는 용어 를 썼습니다마는 정상이 한 것도 거부하고 있는 데 그 이전 것을 존중하겠다 하는 게 이게 논리 적으로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존중하겠다 그러면 이제는 명확하 게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방정책기획관이라고 했습니까?

- ○국방부정책기획관 권오성 예, 그렇습니다.
- ○권영길 위원 NLL 지역은 누가 관장하는 겁니까? 우리의 관장입니까, 아니면 유엔사의 관장입니까? NLL 지역을 누가 관장하느냐는 거지요?
- ○국방부정책기획관 권오성 저희 관할 구역입니다.
- **○권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서해 교전 이전과 이후에, 교전수칙 이라고 그럽니까?

○국방부정책기획관 권오성 교전규칙이라고 합

니다.

- ○권영길 위원 장관이 오셨으니까 명확하게…… 오시자마자 바로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괜찮겠 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 ○권영길 위원 NLL에 대한 우리 교전수칙에 관한 질문을 막 하려는 겁니다.

서해교전 이전과 교전 이후의 교전수칙이 다르 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과거에 1차 서해······
- ○권영길 위원 우선 실무진에서 그 자료를 주시 기 바랍니다.

서해교전 이전에, 지난번에 서해교전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의 교전수칙은 어땠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1차 서해교전과 2차 서해 교전이 다른데……
- ○**권영길 위원** 맨 마지막에.
- ○국방부장관 이상희 1차 서해교전 때는 경고방송을 하고 대개, 이것은 지나서 저희가 폐기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경고방송을 하고 무력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차단 기동을 하고 그리고 경고 사격, 격파 사격 이렇게 해서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화시켰습니다.
- ○권영길 위원 그래서 2차 교전 이후는 바뀌었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 ○권영길 위원 바뀌어진 것은 어떻게 됐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바뀌어진 것은 2차 교전 이후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경고 방송……
- ○권영길 위원 절차가 많이 생략되었고, 어떻게 됐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경고 방송 그다음에 경고 사격, 격파 사격 이렇게……
- ○권영길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동 차단이라고 해 가지고 뱃머리를 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이 없는 거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권영길 위원** 자, 그 교전수칙이 바뀌어 있습니다.
- 이 NLL 선은 휴전 이후에 유엔이 선언한 선이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1953년 8월에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 ○권영길 위원 이후에 유엔에서 선언한 거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권영길 위원** 남북 측의 합의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유엔이 정전협정 이후에 선언한 거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권영길 위원 북 측에서는 이것은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남북 합의가 안 된 것이다 이렇 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이 북 측의 주장입니다.
- ○권영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남북 간에 논의를 해서 합의의 선을 만들어 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전까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정확한 표현은 남북이 해 상분계선에 관하여 새로이 협의를 할 때까지는 현 각각 남북이 관할한 구역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 ○권영길 위원 북측은 어쨌든 여기에 관해서 계속 협의를 하자 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용삼 위원장, 박선숙 간사와 사회교대)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북측의 입장입니다.
- ○권영길 위원 그런 입장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중단되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측에 서도 남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도 선언을 하겠다 그런다면 아까 2차 서해교전 이후에 교전수칙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냥 바로 실제적으로 충돌이 바로 이렇게, 사격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북한이 적대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 ○권영길 위원 아니요, 우선 북측에 의해서 NLL선, 그것도 유엔 측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따라서 이 협의 진행도 지금 중단돼 있기때문에 선을 더 남하하겠다 그런다면 남하에서 북측의 어선이 내려올는지 또는 북측 해군함정이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면 과거 같으면 경고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바로 사격이, 서로 응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의하여 지금 저희는 양측이 관할해 온 구역을 새로운 해상분계선이 설정될 때까지 인정을 한다고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NLL 선상에서 NLL을 만일 적이 월선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선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분명히 해 줍니

다.

○권영길 위원 국방부장관도 나오셨고 통일부장 관도 나오셨습니다. 외교부장관은 못 나오셨는데, 우리 옛날 같으면 NSC의 주요 멤버 주무장관들 이 다 나오신 겁니다. 세 부처에서……

아까 첫머리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력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다분히 있는데 이거 일어나면 경제 살리기니 뭐니 이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 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말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때까지의 어떤입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NLL, 서해에서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바꿔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즉 그야말로 획기적인 특단의 남북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겁니다.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아까 통일부는 존중하겠다고 그랬는데 명확하게 해 가지고 대화가 복원되기를 추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가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는데 순서대로 일 단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순 위원 외교부 차관님, "'한미 관계가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통미봉남'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당연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통미봉남 하는 능력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정부가 그런 입장보다는, 그런 것은 부정적 시각이거든요. 긍정적 시각으로 이걸 끌어가야 되거든요. 북한도 끌어오고 또 미국과 북한도 관계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생각을해야지 "'통미봉남', 뭐 우리 빼고 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를 제쳐놓고 북한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반대로 지금 남북 간의 강경 대 강경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하고도 되지 않고 또 한국하고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막혀 가지고 생길수 있는 아주 파괴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부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반도에서 상황이 생

기면 누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아까 외교부 차관이 북한의 핵 능력 관련해 가지고 인도나 파키스탄이 사실상 NPT 회원국도 아니지만 NPT에서 지위를 전부 다 인 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북한의 핵 능력 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 한 발언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어떤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송민순 위원** 아까 홍정욱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서 그렇게 인도, 파키스탄 이야기하셨죠?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송민순 위원** 그건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상호억제능력을 위해서 핵개발을 한 것 아닙니 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송민순 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 한반도에서 지금 상호억제능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핵확산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 는데 그렇게 동의하시죠?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글쎄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북한 이 만약에 파키스탄이나 인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런 나라들과 같이 사실상 핵보유 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헛된 희망을 갖도록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NPT에 들어와서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6자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국제사회는 다 그렇게…… ○송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라도……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그냥 단정적인 표현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지금 천명하고 언급하고 인정을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하고 지금 외교부 차관께서 이야기하시는 당위하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현실하고의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우리 국방부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점점 한미 간의 조율을 강화해서비슷한 같은 라인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아마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미국이 미리 말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단정적인 선언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성명을 해놓았기 때문에한미 공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결국 미국의생각, 입장해 놓은 그리로 따라갈 개연성이 높다이겁니다. 그게 미리 안 나왔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 클린턴 국무장관 오기 전에 우리 외교안보수석이 미국 가서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핵능력에 관한 협의 그다음에 북한의 내부 정세에 관한 협의를 그게 지금 핵심 적인 협의 대상 아니었겠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미국과 사전협의를 했을 때어떻게 미국하고 입력이 되었길래 지금 전에 논의들이 많이 된 북한 내부 정세에 관한 공개적 언급이라든지 북한의 핵능력에 관한 계속적인 언급, 클린턴 국무장관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사전협의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계속 지금 "6·15 그다음에 10·4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

어차피 남북 간에는 다 정치적 선언으로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건 정치적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 반대일 적에는 뭐냐 하면 이것은 그렇게 정치적 선언 성격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시사하는 겁니다.

지금 학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일부장관으로서는 그렇 게 이야기를 하셔서는 안 되는 거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원수가 서명한 그것보다도 더 강한 구속력 있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지금 계속 그걸 "정치적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주장을 하시면 앞으로 통일부장관으로서 남북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굉장히 지장이 된다는 점을,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데 그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뉘앙스를 그렇게 해석을 하

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송민순 위원 아니 그건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들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하시 고요. 통일부 간부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그런 문제도 논의 한번 해 보십시오.

-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 ○송민순 위원 그다음에 원정화 사건 있죠?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 ○**송민순 위원** 국방부장관님도 그 사건 아시죠?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 ○송민순 위원 원정화 사건이 간첩사건이죠?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송민순 위원 그런데 이게 간첩사건이나 이런 것은 그 간첩을 수사하는 그러한 내부적인 규칙 에 의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원정화 사건을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로버트 김 사건 아시죠?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송민순 위원** 로버트 김이 미국에서 간첩혐의 로 기소된 거죠?

그러면서 로버트 김이 미국에서 간첩으로 기소되면서 그리고 형을 살면서 수많은 재미 교포들이 미국 내에서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에 있는 1만 5000명의 북한이탈 주민들이 바로 원정화 사건 이 케이스로 해서북한에서 이탈해 온 자유를 찾아 이탈해 온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 어디 일자리를 받고 할 때 '아,이 사람이 또 어디의 무슨 일에 연루될지 모른다.' 하는 생각에서 굉장한 선의의 피해가 많이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나의 개별적인 간첩사건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간첩은 당연히 잡아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가안보조정회의 같은 데에서 장관님들끼리 모여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생기는 건지 이런 걸 해야지 지금 계속 그냥 북한 인권, 인권 이야기만 강조를 하면 실제로 여기 내려와 있는 1만 5000명의 사선을 넘어서 온1만 5000명의 북한이탈 주민들이 자기는 멀쩡하게 있다가 이런 사건으로 피해를 입는단 말씀이에요.

게다가 지금 결국 법정에서 이 사람이 한 것 중에서 이 사람은 간첩이지만 그 관련된 사람에 대한 혐의는 또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 8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정부가 말 없는 그리고 소리 낼 수 없는 소수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방부장관님하고 통일부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상희 간첩행위를 한 것과 그에 따른 다른 타인들의 피해와는 물론 별개의 문제입니다. 간첩행위는 분명히 간첩행위로서 처벌이되어야 하고 또 선의의 피해가 있다면 그건 다른 측면에서 고려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첩행위 한 것 자체를 어떤 선의의 피해를 예측해서 그걸 처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민순 위원 아니 그건 제가 간첩혐의를 처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사건이 얼마나 sensational 하게 크게 하면서 그 선의의 피해의 폭이 확대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 아닙니까?

간첩혐의는 당연히 간첩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처벌하되 거기에 대해서 균형이 있어야 된 다는 거예요, 균형.

그러니까 이것을 sensational 하게 보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탈북자, 이탈주민들에게 어 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통일부가 이 문 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통일부 간부 누가, 지금 장관님은 그때 안 계 셨으니까 간부 누가 한 분 설명을 하십시오.

○**통일부인도협력국장 천해성** 인도협력국장입니다.

당시 간첩사건은 간첩에 대한 수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통일부하고 직접 관련은 없었습니다.

○송민순 위원 제가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안보정책조정회의 같은 것을 할 때 해당 부처장관들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국방부나 관련된부서가 또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 장관들의 의견을 좀 모아둬서 빈 데가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이범관 위원 오늘 발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 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외교부 차관님께 좀 질의 하겠습니다.

클린턴 장관이 어젯밤에 방한하는 기내에서 "북한이 조만간 후계 문제를 둘러싼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발언했죠?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아까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범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남북관계 경색이 우리 남쪽 우리의 문제때문에 된 것처럼 자꾸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런 견해로만 보고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언론이 금일 여러 언론이 보도한 걸 제가 죽 보니까 왜 클린턴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북한의 도발이나이런 것이 왜 있느냐 하면 최근 북한의 미사일발사 위협과 잇단 호전적인 대남 공세도 후계구도를 둘러싼 북한 내부의 이상 기류와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클린턴 국무장관이 기내에서 발언한 내용은 제가 그걸 정확하게기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그중에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과 같이 다소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이범관 위원 제가 좀 여쭤볼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간단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 제한을 받아서.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보도된 바와 같이 그렇게……

○이범관 위원 이런 분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이범관 위원 또 클린턴 장관은 이런 후계 문제하고 관련해서 북한 리더십 상황이 불확실하고 건강 이상 문제가 있는 김정일 위원장을 대체할 후계 문제를 놓고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잠재적인 권력구도 변화가 북한과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그게 하여튼 전체 텍스트를 읽어 보면……

○**이범관 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과장된 해석을 하

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보도는 미국이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해서 북한 내에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발언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 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범관 위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 각을 하세요?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아니, 그러니까 가 정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 위 치는 아니고요. 클린턴 장관이……
- ○**이범관 위원** 아니, 정부의 입장을 묻는데…… 지금 개인 입장을 물어보는 게 아닌데 대답을 확 실히 하셔야지요. 이런 우려가 있는 일각의 의견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우려를?
-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글쎄요, 미리 미래 상황을 상정해 가지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없 다 제가 얘기하기에는……
- ○**이범관 위원** 나하고 외교를 하러 오셨나…… 알았어요. 나하고 외교 회동 오신 것 아니라고요, 여기에는. 그렇게 자꾸 대답을 하시니까 자꾸 여 러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 힐책을 받으시지.

여러 의견 중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은 사실 아닙니까?

-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그런 의견을 가진 학자들도 많지요.
- ○**이범관 위원**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을 물어보는데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세요. 누 가 뭐.....
-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정부의 입장을 말 씀하시라고 하니까……
- ○**이범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정 부에서도 남북 관계 경색을 남북 문제가 아닌 이 러한 북한 후계 구도 문제까지 걱정해서 미 클린 턴 외교장관이 발언할 때에는 이런 문제도 국내 에서도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 좀 정부도 해 보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겠습니까?

(박선숙 간사, 이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알겠습니다.
- ○**이범관 위원** 그다음에 국방부장관께 좀 질문 하겠습니다.

PSI 문제 아까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잘 아 시다시피 2002년도 12월에 스페인 해군이 스커드

미사일 15기를 적재하고 예멘으로 가던 북한 선 적을 공해상에서 검거한 문제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냐 문제 때문에 일궈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 까? 맞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 ○**이범관 위원**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참여 국가가 많이 늘었지요, 지금? 그리고 오바마 정부는 국정 어젠다를 담은 '오바 마-바이든 플랜'에서 '핵무기 물질의 안전을 확보 하고 핵 물질의 밀거래를 종식시키겠다면서 핵확 산방지조약을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의 이 동을 차단하기 위한 핵확산방지구상(PSI)을 제도 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 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 ○**이범관 위원** 그리고 이것이 유엔안보리 결의 안 1540호 10항의 내용, "모든 국가들은 핵무기, 생화학무기, 그 물질과 운반체에 대한 불법 거래 를 막기 위해 그들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과도 합치되고 있 는 것이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 ○**이범관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지금 참여만 하고 있지요? 정식 참여는 안 했지요? 옵 저버(observer)로 참여하고 있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PSI가 8개 항인데 그중 에
- ○이범관 위원 5개 항인가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5개 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범관 위원** 우리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지 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 ○**이범관 위원** 아마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게 주 장한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점은 남북해운합의 서로도 충분하다'이런 주장을 했던 것 알고 계 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 ○국방부장관 이상희 해운합의서로 충분하다고 얘기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범관 위원** 2006년도 11월 언론보도에 의하 면 말이지요.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에서 답변을 할 때. 출석하셨을 때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선박 가운데 의심스러운 선박 20척 을 관계부처에 통보했다"이런 답변을 했어요, 국정원장이요. 알고 계신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남북해운 합의서상 금지행위를 한다는 혐의가 포착되지 못 해서 검색을 못했다"이렇게 정부가 애매한 답변 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 남북해운합의서가 실 효성이 없어요, 지금. 실효성이 없단 말이지요. 이제 PSI에 우리가 정식으로, 나머지 3개 항에도 참여해서 정식으로 활동해야 될 때가 안 되었느 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국방장관으로서는 PSI에 풀 스케일 (full scale)로 참가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범관 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답변대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제가 관계부처와 외교안보조정회의 등에서 지금 제기를 해서 검토 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범관 위원**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선 위원 박선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방금 이범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제가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그때 장관님이 안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PSI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하 였습니다.

- ○송영선 위원 왜 하겠답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직까지는······

○송영선 위원 여기 20척뿐만 아니라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는데 716회 배가 지나갔는데 한 번도 국방부가 임검을 안 했어요.

왜 이 남북해운합의서를 봐야 되느냐, 남북해 운합의서의 조항을 보면 PSI 참여하기에 상충되 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PSI에 참여하려면 해운합의서 를 폐기하든지 항을 바꿔야 됩니다. 조항을 바꿔 야 됩니다. 다시 안 되풀이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것 담당자에게 좀 여쭈어 가지고…… 이 것을 검토한다고 자꾸 이런 애매모호한 정말 외 교적인 발언은 좀 하시지 말고 태도를 확실히 굳 히시면 해운합의서부터 세 부처가 시작해야 되고…… 사실은 해운합의서 이거 동의해 준 게 딴부서가 아닙니다. 국방부입니다. 그러니까 결자해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계자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클린턴 국무장관, 산케이 신문…… 당장 내일모레 김정운이 후계자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께 여 쭙겠습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권력세습을 표시 한 게 언제인지 압니까, 뜻을 보인 게?

-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마 70년대로……
- ○송영선 위원 예, 1971년 6월 24일 사노청에서 했습니다,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그러다가 후계 자로 결정한 게 1년 후인 72년 12월 달 당중앙위 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후계자 지목은 언제 했느냐면 8년 후인 1980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공식적인 후계자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일 성이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김정일을 후계자로 확실히 지목한 데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인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그때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또 김정일은 당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다—그래서 두 번째 조건에 당의 권력을 우선적으로 장악해야 됩니다—그다음에 잠재적인 지지 세력인 만경대학 출신과 3대 혁명소조를 중심으로 행정부에 권력기반을 확실히 갖고 있다, 네 번째로 군부의 권력기반을 확실히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또 찬성한 게 뭐냐하면 후계자 등록으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 첫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비범한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탁월한 영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고매한 공산주의 특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를 승계하는 데 조건에 또뭐가 있느냐 하면 순수 혈통이어야 됩니다. 북한당의 순수 혈통, 첩의 자식이면 안 됩니다. 또 주체 혈통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후계자가 수령될 때에 생존 시에 선정되어 가지고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김일성의 신화론을 그대로 체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에게 충성한 자야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1980년대의 이 기준이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될 수

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운이 든 김정철이든 김정남이든 다 하자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바로 후계 구도를 주기에는 첫째, 김정일과 비교해서 김정일은 20년 이상 후계자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4 년 동안 정신이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94년 7월 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98년까지는 칩거를 완전 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정운 운운한다라는 자체가 북한 사회가 극도로…… 김정일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자기 정치 구도에, 권력 구도 에 지금 누수 현상이 생긴다 이런 것까지를 느끼 기 때문에 우리 쪽에도 온갖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통일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통일부가 대변인 자료로 막 이렇게 발 표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 사회의 권력 구도라는 것은 이렇게 되고 후계 구도는 이렇게 되니까 김 정운이 되느니, 김정철이 되느니, 김정남이 되느 니, 장성택이 되느니, 김일철이 되었으니까 어떠 Ц.....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또 덩달아 국 방부에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에 군의 이동을 보고 완전히 야전에 강한 사람을 뽑아 놨다. 정 말로 이것은 북한 사회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 인데 김정일을 당 후계자로 지목하기 직전에 80 년 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자기 자신을 중앙 위원 172명을 248명으로 증원시켜 가지고 70.6% 가 찬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쇼가 필요해 요.

그러니까 김정운도 지금 3월 8일에 군사위원으 로 올릴 겁니다. 먼저 인민대의원선거에서 무조 건 당선되도록 3월 8일 전까지 작업을 해서 그러 니까 지금 출마를 하지요. 그다음 중앙군사위원 회 위원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당 중앙위원회 에서 자리를 하나 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북한 사회에 후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를 간접적으로라도 좀 깔아서 알려 가지고……

제가 아까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외교부나 통일부나 국방부가 지금 막 달러가 1500씩까지 올라가고 경제가 혼란한 상태에 이런 막 구분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참고 기다린다, 보고 있는다 그 전략은 …… 참고 기다 리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 라인을 줘서 불안해할 것 하나도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물론 제가 시간이 그래서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을 다 언급을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통 일부는 통일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 히 짚어 주셔야 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우리 존경하는 송영 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통일부장관으로서 북한과 대 화해야 되는 그런 또 특별한 입장에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송영선 위원 아니, 그렇게 제가 비밀을 노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특수사회로 볼 때는 이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만큼 불안한 것은 아니니까 그거에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간접 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이것을 좀 깔아달라는 겁 니다.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 꾸 그렇게 빙빙 돌리는 외교적인 발언을 하면 누 가 책임집니까? 지금 보니까 세 분 다 중에 아무 도 책임지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님께서 북한 도발에는 분명한 입장 을 갖고 있다, 북의 수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하 나하나 대응할 필요가 없고 행동에 의해 실체 적 · 군사적 도발을 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을 비례적으로 할 것이다…… 저는 원칙적으 로 이것 절대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첫째 질문은 수사적 위협이라는 것은 조평통 선언이나 노동당 논평이 나 민족신보가 나오는 거나 북한인민총참모부 성 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행동에 의해 실체적·군사적 도발을 할 때에는 바로 단호하게 대응한다, 저는 이 원칙도 철저하게 찬성합니다. 그런데 행동에 의한 실체 적 · 군사적 도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쭈어 보기에 제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시나리오별로 NLL 쪽을 실크웜이나 KN-O2 같은 미사일,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해안포를 쏠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것도 해안포를 쏠 경우 에는 3월 7일이나 8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습 니다, 키 리졸브(key resolve) 직전에.

그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크웜 90km, KN-O2 120km 이것 해주서 인천까지가 90, 해주 서 서울까지가 딱 120km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시도를 할 거고 장거리 사정포는 당연히 할 거고

그다음에 GP, 2005년에 사건이 생겼는데도 국방부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GP에 난동이 일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GP의 북쪽 애들이 우리 불침번 서는 애들한테 와 가지고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장거리 미사일 쏘기 직전에 일어날 개연성이 훨씬 더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런 발생 가능한 상황을 저희가 다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선 위원**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요. 충분히 대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게 마지막 카드이고, 또 날씨가 따뜻해야 엔진 연료에도 문제가 없고, 추진체 연료에도 문제가 없고 또 기술적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무수단리에서 쏘는 게 아니라 동창리에서 위성을 발사할 것 같습니다, 장거리 미사일보다는. 그건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이넘어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쪽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이 이 시나리오를 충분히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응 체제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이니까 일일이 말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선 위원** 통일부장관님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요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조금 안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림 위원 6·15, 10·4 공동선언에 대해서 통일부장관님께 그리고 NLL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께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오시고 6·15, 10·4 공동선언에 대해서 이것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한 협상을 촉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협의를 북한과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광림 위원 할 용의가 있다?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 ○김광림 위원 이게 종전보다는 많이 앞서 나가 시는 거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액면, 말씀드린 그대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광림 위원 예를 들면 전에 뭐가 붙어 있었 느냐 하면, 금강산 사건에 대한 사과 내지 유감 표명이 전제되어야 됐습니다. 그 전제……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말씀은 금강산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발 방지, 신변 보 장 이런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됨을, 여전히 유효 함을 말씀을 올립니다.
- ○**김광림 위원** 그걸 전제하면서 6 · 15, 10 · 4에 대해서 이를 존중하고 이행을 위한 협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 ○**김광림 위원** 국방부장관님께 NLL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촉구성,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마치셨는데, '혹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남북 충돌이 있으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타격이심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NLL 협상, 남하를 포함해서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라는 촉구의 말씀에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마치셨거든요, NLL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상희 NLL은 1953년 8월에 정 전협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정한 선입니다. 우 리 군은 또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NLL 을 해상경계선으로 하여 지켜 왔고, 거기에 우리 해군 장병들의 피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얘기된 새로운 경계선이 설정되지 않는 한 우리는 NLL을 분명히 지킬 것입니다.

-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NLL의 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거지요? 그걸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촉구하셨는데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국민들이 '어, NLL도 협상 대상에들어가는가'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님이 한번 천명을 해 주십시오.
- ○국방부장관 이상희 NLL은 분명한 현재의 해 상경계선이고 이것은 지상에 있는 군사분계선과 동일한 개념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 ○김광림 위원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선숙 위원 앞에 이어서 다시 한번 NLL에

서의 교전수칙과 그에 의거하여 위임되어 있는 작전권한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에 의해 서 교전수칙에 의거하여 위임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평상시에 필요한 일이고 또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져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 다.

문제는 이러한 평상시의 교전수칙과 작전권한 의 위임이 비상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전 의 대응 방식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 한 문제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지휘관의 불충분한 정보에 의한 오판의 가능성들과 그에 따른 확전 의 가능성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상한 시기에는 기존의 지침이 아닌 지휘통제 체제를 좀더 적극 가동할 필요성들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어떠한 비상 상황이 발생 하더라도 우리의 현장 지휘관은 자기의 장병과 자기의 함정이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피해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 ○**박선숙 위원**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자위권의 차원에서, 자위의 기준 에서 또 그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저 는 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고 판단하는 것에 관한 것은 이 비상한 상 황이 확대되어 확전으로 갈 가능성과 관련되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전과 관련해서는 지휘통제 체제를 적 극 가동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데, 그것 은 2002년 서해교전 이후에 현장에서의 함정 사 령관만이 아니라 육해공군의 합동 작전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미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현장 사령관들이 내리고 있는 판단들이 상호 충돌될 수도 있는 점도 있고 해서 지휘통제 체제를 적극 가동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러한 것은 군에서 다 분 명히 지휘통제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 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다른 위원님이 3월 7일이라고 날짜를 명시하셨습니다 마는, 올 3월부터 6월에 이르는 이 기간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꽃게 성어기에는 항상 다

른 때보다 도발의 가능성이 증가되어 있던 그러 한 시기입니다. 금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박선숙 위원** 일상적으로 매년, 그것이 연례적 으로 반복된다라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올해 북한이 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서 더 남다른 대비가 필 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은……

○박선숙 위원 한 가지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 다.

1962년에 쿠바에 미사일 위기가 났을 당시에 미국의 맥나마라 국방부장관이 그 10일간 어디 계셨는지 아십니까?

- ○국방부장관 이상희 어디 있었습니까?
- ○**박선숙 위원** 해군 상황실에 상주하고 있었습 니다. 저는 이것이 지휘통제 체제를 적극 가동하 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쿠바의 미사일 위 기는.....
- ○국방부장관 이상희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
- ○**박선숙 위원** 그렇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현장 지휘관에게 현장 지휘관에 필요한 권한 이 당연히 위임이 되고, 그렇다고 하여 교전이 발생을 하면 저 말단 함정부터 합참까지 심지어 연합사까지 모든 상황실은 다 대기를 해서 자기 몫을 하는 것입니다.
- ○**박선숙 위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맥나 마라 국방부장관이 해군 상황실에 가 있었던 이 유는 현장에서 교전수칙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 용할까 봐 그것에 대한 지휘통제 체제를 가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지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 면, 제3차 세계대전을 막아 낼 수 있었던 것은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맥나마라 국방부장관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제 체제하에서 위기의 상황을 관 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군사적 대 비 태세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부터 국 방장관을 거쳐서 현장의 지휘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휘통제 체제를 적극 가동하면 서 위기를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휘통제 체제는 당연히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박선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리고 맥나마라 건을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막강한 우월한 전투력으로 소련의 선박을 차단한 것 자체가 억제 역할을 하 였고 그 막강한 전투력의 현시가 결국 소련의 함 정이 복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박선숙 위원 그 과정에서 교전수칙을 경직되게 해석했다면, 경고 사격이라든가 경고 사격이아니라고 오인할 수 있을 만한 사격이 있었던 것을 막았던 것은 국방부장관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문제는 저와 합참의장 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래서 안보조정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데에는 국방장관과 통일장관, 외교장관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의견을 대통령께 내셔야 됩니다. 이것은 군의 문제로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고, 군은 군의 역할을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핫라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종합적인 국제 관계를 고려하고 또 남북 관계를 고려하고 군사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정말 신중한 판단이 매 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께서 특별히 이 점에 관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PSI 참여 문제에 대해서 해운합의서와의 충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 리 정부가 여러 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양자 간 에 맺어진 어떠한 합의도 일방이 파기할 수 없습 니다. 그것은 이 남북해운합의서에도 해당합니다. 우리가 PSI와 남북해운합의서가 충돌할 때에 남 북해운합의서를 내려놓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포 기하고 PSI 참여를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요.

유명환 장관께서도 지난해 국감에서 말씀하시고 국방부장관께서도 PSI 참여 의사를 말씀하시는데, 오바마 정부는 PSI 제도화에 대해서 언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PSI가 국제법적인 규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화하려고 할 때에 기존의 PSI 내용을 그대로가지고 들어올 것인지 혹은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외교부차관,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 PSI에 우리가 정식으로 가입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지게 될 의무가 우리가 북한과 합의 한 남북 해운 합의상의 의무와 제가 볼 때는 상 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SI 규정은 핵심이 각자 자기 국내 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규정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 남북한 간의 해운협정의 내용이 PSI보다도 더 강한 의무를 규제하고 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이유 때문에 상충되지 않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 질의 요지는 기존의 PSI 규정이 아니고요, 오바마 정부가 제도화하려고 하는 그 규정이 같은 내용인지 혹은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는가 질문 드렸습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PSI는 약 80여 개 국이 모여서······

○박선숙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압니다. 그게 아 니라……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같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해라, 안 해라' 저는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박선숙 위원 제도화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당연히 내용 검토에 지금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그내용을 그대로 국제법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그동안 제도화를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가 있느냐고 여쭈었는데, 아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도화를 진행하려고 할 때는 오바마 정부가 전체를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 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한 현재까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걸 바꾸려고 하든가 어떤 변경시키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선숙 위원 좀더 알아보셔요.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예, 알겠습니다.

〇박선숙 위원 앞으로 내용이 좀 나와야 됩니다.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생하셨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송영선 위원님 좀더 하시겠어 요?

간단히 해 주시지요.

○**송영선 위원** 지금 외교통상부차관님이 말씀하 신 PSI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싶지만 시간을 제가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마 지막으로 세 장관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 니다.

우리가 끝까지 북한이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것 을 우리 스스로 강조하거나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데 동의를 했다가 도로 바가지를 뒤집어쓰는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드리겠습니다.

북쪽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맞다, 너희들이 그 렇게 우리가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하면 94년 제 네바합의에 의해서 우리는 핵보유국 아니다'. 제 네바합의에 의하면 경제적 지원해 준다 했잖아, 핵보유국 아니니까. 둘째, 중유 내놓아라, 세 번 째, 경수로 짓다가 실패했으니까 지어 달라……

우리가 지금 비대칭적인 군비통제만 걱정해서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한 가지 덧붙일까요? 저쪽에서 군비통제팀에 안 나가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런 핵 문제가 안 풀리면서 군비통제에 끌려 들어가게 됐다…… 뭐 라고 하겠습니까? '당신네들 핵 없애면 우리가 장갑차 몇 대 없애겠다, EEZ선 없애겠다' 조건인 데 저기에서 '뭔 얘기냐, 우리는 핵 없는데?' 이 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 여우 피해 가다 늑대 만난다 합니 까, 늑대 피하려다 여우 만나는 ……

이때까지 정부가 '북한이 핵 개발하는 데 돈을 어떻게 썼고'계속 얘기해 오다가 대통령이 입 조심하라니까 온갖 외교적인 수사를 붙여 가지고 '북한 핵보유국 아니다' 이거 자승자박합니다.

내놓고 핵보유국이라고 떠들 필요는 없지만 최 소한 이런 얘기는 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보유국 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정책이라는 거는 항상 최 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때까 지 해 온 행태나 능력이나 기술이나 돈을 쓴 부 분 같은 거를 볼 때 핵보유국이라는 대전제를 염 두에 두고 우리가 대비하는 게 좋다라는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지, 무슨 '핵 개발 프로그램 중이 라고 생각합니다, 핵보유국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말로는

어느 쪽을 해도 이깁니다. 'NPT 체제를 2003년 1월 10일 날 탈퇴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국가 아니야, 핵을 가져도 NPT 체제에서 간섭 못 해' 아니면 핵이 없다고 하면 '그래, 핵 없으니까 경 제 지원해 달라'……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입니까, 후 년입니까, NPT 체제 25년 만에 검토를 해야 됩 니다. 절체절명입니다. 그런 차제에 북한을 인정 하면 '아니, NPT 체제가 근본적으로 허술하구 나'…… 이러한 국가의 이익 때문에 미국 양발작 전 하는 거 보십시오. 국가정보원. 합참. 국방부. 전부 핵보유국이라고 했다가 힐러리 클린턴이 아 니라고 했다가 또 힐러리 클린턴이 며칠 전에 '북한이 핵 폐기하면 미·북 수교하겠다'했습니 다. 폐기, '디스맨틀(dismantle)'이라는 영어를 썼 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디스맨틀이라는 용어를 언제 씁 니까?

○외교통상부제1차관 권종락 그건 핵 폐기 그 대로....

○**송영선 위원** 그렇지요, 핵 개발 프로그램을 디스맨틀이라고 안 씁니다. 핵무기가 있을 때 디 스맨틀입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제가 다시 부탁, 정말로 다 걱정하시는 분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나라 위 해 걱정하고 우리도 사실 다 나라 위해 일하겠다 고 나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국가 정책상 그렇 다면 내놓고는 못 하더라도 그런 대전제하에 우 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지만 회의를 마 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탈북자 단 체를 통일부에서 관리하나요, 국정원에서 관리하 나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탈북자들은 통일부에서 관 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최근에 대북 전단 살포하면서 북한 화폐 이렇게 붙여 가지고 보냈잖아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 ○委員長 李龍三 탈북 단체에서 실행을 했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풍선 두 개를 올려 보 냈고 소량의 화폐를 같이 넣어서 보냈습니다.
- ○委員長 李龍三 보냈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 ○委員長 李龍三 현 장관님이 통일부장관 되시기 이전이나 되신 다음에나 탈북 단체에서 대북전단 뿌리고 또 화폐까지 붙여서 보낸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의견을 갖고 계셨지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통일부가 누차에 걸쳐서 자제를 요청해 왔고, 또 뿌린 이후에 엊그제 그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 ○委員長 李龍三 그랬습니까?
-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 ○委員長 李龍三 국방부장관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제 또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지요? 국방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어떤 것에 대해서……
- ○委員長 李龍三 대북 전단 탈북자 단체에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정부 방침대로 국 방부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龍三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 ○委員長 李龍三 그런데 탈북 단체에서 그걸 계속 시도해서 하지 마라 하는 권유나 또는 자제 요청 정도 가지고는, 저들이 정부 얘기를 잘 안듣는 건지 정부의 자제 요청이나 권유가 좀 약한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강력하게 못 하는 건지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저희 정부는 현행 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자제 노력도 사실상 그간에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委員長 李龍三 법적으로 규제를 하지 못해서 못 한다면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할 생각이나 연 구는 혹시 안 해 보셨나요?
-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 토한 바 없습니다.
- ○委員長 李龍三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쭤 봤는데 혹시 제 말씀이 참고가 되신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龍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서면질의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보내 주시고, 질의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 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보탬이 되는 많은 정책 대안들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수용하여 남북문제 해결에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상희 국방부장관, 권종락 외교통상부1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다음 특위가 있을 때, 오늘 보니까 국 방부, 통일부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실무 책임자 분들이 여러분 나오셨어요.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차관님 혼자 나오시고 과장 한 분 나오셨더라고요. 책임자급 실·국장 되시는 분들이 안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차관 혼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두 대답하기는 어려움도 있을겁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는 실무 책임자의 서포트를 받을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사례가 안 생기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의사일정은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김 영 우 김 창 수 문 학 진 박 선 숙 송 민 순 송 영 선 이 범 관 이 용 삼 주 성 영 홍 정 욱

○청가 위원(2인)

이 광 재 황 진 하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구
 희
 권

 전 문 위 원
 허
 영
 호

○정부측 참석자

전략기획본부장

국방정보본부장

외교통상부

74001			
제 1 차 관	권	종	락
조 정 기 획 관	최	연	호
통일부			
장 관	현	인	택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중	태
통 일 정 책 국 장	김	천	식
인도협력국장	천	해	성
개성공단시업지원단장	김	영	탁
국방부			
장 관	0]	상	희
차 관	장	수	만
정 책 기 획 관	권	오	성
군사정보부장	김	왕	구
작 전 부 장	0]	성	호
군비통제차장	문	성	묵
합동참모본부			

김 기

황 의

수

돈